

한인뉴스

2015

2

VOL. 224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인천	KE628	2205	0655 ⁺¹	매일
		KE626	0755	1655	월,목,일
인천	서울	KE627	1535	2040	매일
		KE625	1920	0040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롯데쇼핑애비뉴만의 8대 쇼핑 특권

1 *Exclusive* DEALS

롯데쇼핑애비뉴만의 특별하고 유익한 프로모션 프로그램

- ♥ 상시 상품권 증정 행사 (또는 구매 금액에 따른 특별 사은품 증정)
- ♥ 페이데이 이벤트 (전 상품 10% 추가 할인)

2 *Exclusive* BENEFITS

롯데쇼핑 애비뉴 회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 ♥ 롯데쇼핑 애비뉴 멤버 대상 특별 할인
- ♥ MVG 회원 전용 특별 무료 주차 공간
- ♥ MVG 회원 전용 라운지
- ♥ 뷰티클럽 멤버 대상 피부 관리 프로그램



3 *Exclusive* SERVICES

고객 감동을 위한 롯데쇼핑 애비뉴만의 특별 서비스

- ♥ 수선 서비스
- ♥ 사전 주문제 실시
- ♥ 외국인 대상 쇼핑 가이드 서비스(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4 *Exclusive* WORLD CLASS EVENT

고객님들께 쇼핑 이상의 즐거움을 드리는 다양한 공연



5 *Exclusive* FACILITIES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 ♥ 층별 모유 수유 센터
- ♥ 쇼핑몰 내 2000여석의 휴식 공간 제공



6 *Exclusive* SPACES

롯데쇼핑 애비뉴만의 특별한 공간이 만드는 특별한 경험

- ♥ 아쳐센터(Art & Culture Center)의 다양하고 유익한 강좌 개설
- ♥ 아이스펠리스 미니 콘서트 홀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벤트



7 *Exclusive* LOCATION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가능합니다

8 *Exclusive* TAX-FREE SHOPPING

롯데쇼핑 애비뉴만의 면세 쇼핑

- ♥ 롯데면세점
- ♥ 롯데백화점 Lotte Department Store
(일정 구매 금액 이상시 외국인 대상 부가세 환급 서비스 제공)



*Terms and Conditions Apply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2015 JIKS 고등과정 졸업식에서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 doodle

차례.....6

이모저모 한인사회.....8

논설위원 칼럼/ 재벌판도 <김문환 논설위원>
한인회, 한인외식업체와 간담회
'텅빈총만' 전

Music Movement

글로벌 CEO 2기 과정 수료식

한국어 교과서

정의화의장, 한인동포초청간담회

코린도 장학재단

자총련, 신년하례식

UPH대학생, 한국문화탐방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다수를 감시하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개인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른 바 '스몰 브라더스'의 세상입니다.

블랙박스, CCTV, 스마트폰, SNS 가 범죄를 예방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동시간대의 소통을 위해 존재한다는 선기능이 이전 우리에게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보여 지는 화면을 위한 다른 나를 만드는 피곤함에 노출되고, 의도가 있는 처음 유포자의 퍼 나르는 단순 일개미로 사는 우리가 보입니다. 많은 데이터에 둘러 결정을 포기하고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는 않는지..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빅 데이터를 만든다면 우리가 가진 조각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제5회 인도네시아이야기문학상 시상식 인도네시아 ADRF 드림센터 출범식 명장면 하나 KOICA, 97기 WFK 봉사단원 파견 인도네시아 WFK 봉사단 파견 연하작품전 한민족동포대상2014, 엄정호 대표이사 JIKS소식	2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2
2015 1월 경제브리핑.....29	Jalan-Jalan Jakarta / SD Obama<사공경>.....45
에세이/정글속 신선놀음<김자형>.....34	청소년교육캠프<정다미>.....48
지상갤러리<김선옥>.....26	법률해설/ 분쟁해결3<이승민>.....52
세 단 어<윤 난 희>.....38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56
내 마음의 뜰 / 야자나무 <시:한경순/그림:이태복>.....41	응급처치.....58
	화 도 소62
	재외국민등록.....64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벌판도

Forbes' list of 10 richest Indonesians
As of December 2014

1	R. Budi & Michael Hartono Bank Central Asia, Djarum	\$16.5 B Up from \$15.0 B
2	Susilo Wonowidjojo & family Gudang Garam	\$8 B Up from \$ 5.3 B
3	Anthoni Salim & family Indofood	\$5.9 B Down from \$6.3 B
4	Eka Tjipta Widjaja & family Golden Agri-Resources	\$5.8 B Down from \$7.0 B
5	Sri Prakash Lohia Indorama Ventures	\$4.4 B Up from \$3.7 B
6	Chairul Tanjung Trans Corp, Bank Mega	\$4.3 B Up from \$4.0 B
7	Boenjamin Setiawan & family Kalbe Farma	\$3.5 B Up from \$3.0 B
8	Mochtar Riady & family Lippo Group	\$2.7 B Up from \$2.5 B
9	Peter Sondakh Express (Rajawali Group)	\$2.3 B Deown from \$2.7 B
10	Sukanto Tanoto RGE Group, APRIL, RAPP	\$2.1 B Same at \$2.1 B

김문환/논설위원

2014년 12월 기준 포브스 판 인도네시아 재벌순위에 의하면, 자룸(Djarum)그룹 하르또노(Hartono) 가족이 지난해보다 15억불이 늘어난 165억불을 기록하여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2002년 금융구조조정청(BPPN)이 실시한 공개입찰을 통해 주력기업으로 편입된 BCA은행 주가가 50% 상승한 데 기인한다. 친정부 성향이 강한 자룸그룹은 조꼬위 집권기간 동안에도 사세확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3월 하르또노의 장남 빅토르(Victor)는 살림그룹의 최고경영자인 베니 산또소의 딸 아멜리아(Amelia)와 성혼하여 정상급 재벌간의 혼맥을 형성한다. 지난해 4위에 올랐던 구당 가람(Gudang Garam)그룹의 수실로 위노위조요(Susilo Wonowidjojo) 가족도 27억불이 늘어 2위로 올라서며 1,2위 순위를 담배업종이 독점하고 있다.

수하르또 정권시절 ‘재벌 중의 재벌’이었던 살림그룹의 안토니 살림(Anthony Salim)은 지난해와 비슷한 59억불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제분, 식품을 비롯하여,통신, 소매, 부동산, 은행업으로 다변화되어 있다. 1950년대부터 수하르또와의 유착을 통해 50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호로 이름을 날렸던 림슈룡(Liem Sioe Liong)은 3남인 안토니를 그룹 후계자로 삼은 바 있다. IMF사태 이전 주력기업이던 시멘트(Indocement), 금융(BCA)이 타 업체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푸드(Indofood)을 세계 최대 라면 생산업체로 올려놓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2세 기업인답게 해외에도 눈을 돌려 필리핀의 통신사업, 독일에서의 인터넷사업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실현하고 있다.수하르또 군부시절 살림그룹의 뒤를 이어 만난 2위 그룹으로 족해야 했던 시나르마스(Sinar Mas)그룹의 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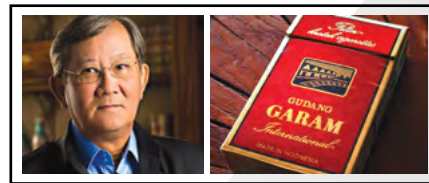
짱파 위자야(Eka Tjipta Widjaja)도 92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4위를 기록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그룹의 주력인 제지, 농원, 식용유, 부동산, 금융부문을 첫째 부인의 네 아들에게만 골고루 배분하는 가문의 전통을 세우고 있다. 근자에 들어와, 시나르 마스 그룹은 중국의 우환그룹과 합작으로 제철업에도 뛰어들어 한국제철기업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살림그룹의 창업주 림슈룡과 마찬가지로 예가는 9세에 중국 북건성에서 부모를 따라 술라웨시 마까사르로 이주하여 2년 후 중앙무대로 진출하여 자수성가한 1세대 기업인이다. 지난해 6위에서 한 단계 부상한 섬유부분의 지존 인도라마(Indorama) 그룹의 스리쁘라카시(Sri Prakash)는 폴리에틸렌을 비롯하여 제약업종에 걸쳐 44억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 5위까지의 그룹이 수하르토 정권에서 영화를 누리다 IMF사태 이후 잠시 숨을 고른 후, 재기하여 옛 명성을 찾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제3위 그룹이었던 타이어제조업체 가자똥갈그룹을 비롯하여 상위권 재벌이었던 물리야그룹,모던그룹의 사주들은 아직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유도요노 10년 정권 시절 정경유착의 표본으로 가장 괄목한 성장을 이룬 기업인 CT그룹은 6위까지 뛰어 오르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유도요노 정부 마지막 경제조정장관직을 잠시 수행한 하이롤 탄중은 메가은행(Bank Mega)을 기반으로 발판을 구축한 후, 통신,인프라쪽으로 영역을 넓혀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터너사와 합작으로 ‘CNN Indonesia’를 출범시켰다. 10대 재벌 중 유일한 토착민 기업가이기도 하다. 7위에 명단을 올린 베냐민 스티아완(Benjamin Setiawan)의 칼베(Kalbe)그룹은 제약, 의료부분의 선두주자이다. 1960년 창고에서 시작하여 자수성가한 제약업종 부문을 다각화하여 지난해 주가가 25% 상승할 정도로 신장세가 가파르다. IMF사태 직전까지 살림, 시나르마스, 가자똥갈 그룹등과 선두그룹을 놓고 경쟁하였던 리쁘(Lippo)그룹의 목파르 리야디(Mochtar Riady)는 주력인 부동산부문

이 IMF의 직격탄을 맞아 한때 그룹전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가까스로 고비를 넘겨 제2의 전성기를 찾아 나서고 있다. 86세의 고령인 창업자의 두 아들, 스테판(Stephen)은 싱가포르 쪽, 제임스(James)는 인도네시아쪽 사업을 전담하며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언론계열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꼬위 후보를 옹호하였던 리쁘그룹은 지난해 로스엔젤레스 소재 72층 높이의 U.S. Bank Tower 건물을 \$368백만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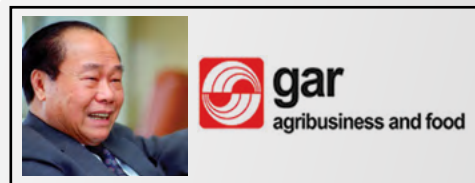
R. Budi & Michael Hartono



Susilo Wonowidjojo



Anthoni Salim



Eka Tjipta Widjaja



Sri Prakash Lohia

인수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 대통령의 차남을 등에 업고 최초의 민영방송인 RCTI방송을 설립한 라자왈리(Rajawali)그룹의 피터 손닥 (Peter Sondakh)은 업종을 전환하여 광업, 농원, 호텔, 운송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라자 가루다 마스(Raja Garuda Mas)그룹의 수칸토 파노또(Sukanto Tanoto) 회장은 업종의 다양화로 인해 왕년의 ‘목재왕’이라는 닉네임은 퇴색된 채, 탈세, 소송의 범망에 포위되어 고역을 치러 왔지만, 주력사업인 펄프, 제지, 농원사업의 안정화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이치뱅크로부터 빌린 1억불 차입금 때문에 단일 광구로서는 인도네시아 최대규모인 아다로광산을 빼앗긴 ‘천추의 한’은 두고두고 앙금으로 남을 것이다. 아다로 광산은 1990년대 초 정치적인 타살을 당해 붕괴되었던 당시 재계 2위 도요타 아스트라의 2세인 에드윈과 의기투합한 젊은 투자기업 경영자 산디아가 우노의 손에 넘어가 아스트라 그룹이 재기하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

개괄적으로 훑어본 10대 그룹의 현주소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맥을 짚어볼 수가 있다. 첫째, IMF 사태를 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탈락한 반면, 담배회사와 같은 내수우주의 기업들은 흔들림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더 이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기업자산을 빈껍데기로 남긴 채 국가에 반납하고 해체되는 제스처를 취했던 종전의 대기업들이 어디서 자금맥이 되살아났는지 속속 유평하고 있다. 이는 재산환수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으나, 인도네시아만큼 사업 여건이 좋은 국가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해 10대 기업 중 CT그룹 하나 정도만 신출내기일 뿐, 나머지 9개 그룹은 모두 전통적인 재벌그룹으로서 싱가포르와 같은 피난처에 잠시 대피하였다가 유평 러시를 이루고 있음을 포브스지가 그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다. 2009년 유럽경제 침체 이후 자원업종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국가경상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종교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 바람까지 가세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통계에서 보듯이 광산, 또는 광산관련업주인 바끄리, 라흐맛(Theodore Rachmat), 로우 퉁 켈(Low Tuck Kwong), 에드윈 수르야자야(Edwin Soeryadjaya) 등이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재계서열 제4위였으며, 개인주식부호 제 1위였던 바끄리그룹의 아브리잘(Aburizal Bakrie)은 유도요노 제1기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2009년에는 골카르당 총재를 역임하며 현재까지 정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10위권, 2011년 30위권으로 하향하다가 2012년부터는 아예 50대 명단 레이다에서 사라져버린 그는 ‘라핀도 재앙’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안은 채, 주력사업인 석탄광업부분의 장기불황으로 끝없는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2년 8월 팬인증권사 애널리스트가 ‘2,3년 내 부미 리소시스 그룹의 파산’을 전망하는 분석을 내놓아 업계에 큰 충격파를 던진 이래,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는 느낌이다. 한때 주당 Rp.8,000 이상까지 올랐던 주력기업 부미 리소시스사(PT Bumi Resources Tbk)의 주가는 RP77까지 추락하여,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푸어사(Standard and Poor’s)는 디폴트 단계로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 그룹 내 또 다른 주요 계열업종인 플랜테이션, 인프라, 부동산 분야도 상황이 다를 바 없다. 바끄리 그룹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주인 바끄리의 정치집중으로 야기된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와 사업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Aburizal Bakrie



합법적인 소주 유통거래 준수를 당부 한인회, 한인외식업체와 간담회

한인회(회장 신기엽)는 14일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한인외식업체협의회(회장 정재익/고주몽 대표) 소속 업소 대표, 대사관, 인도네시아 관세청 정보국 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유통소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정보팀장은 최근 한인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주통관 문제에 대해 “소주가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기호식품이라는 것을 알지만 소주가 안정적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길 바란다”며 “불법주류에 해당하는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금 탈세가 심각하니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인외식업체협의회는 관세당국의 불합리한 부분, 각종 허가조건 완화 등을 요청하고 인도네시아의 법규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관세청은 “법 규정은 지켜야 하고 소주 밀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니 이해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며 “허가조건 완화는 윗사람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엽회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법규를 지켜나가는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이라며 “한인 동포들은 불법 유통 소주는 사지도 먹지도 말자”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주 밀수의 유입을 근절시켜 건전한 소주 유통거래 문화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인회화 주류 공급업체, 외식협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텃빈 충만’ 전(展): ‘한국 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9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주최하고 주자카르타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동 주관으로 ‘텃빈 충만: 한국 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전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K팝과 드라마 열풍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관계자들과 국립미술관 관계자, 미술 관계자들과 한국교민 예술인회 회원, 인도네시아의 젊은 학생들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의 달 향아리와 그 계보를 잇는 단색화를 통해 수준 높은 한국문화의 정신성을 보여주는 텃빈 충만 전시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단색조 회화를 완성한 권영우, 윤형근, 정창섭, 정상화, 하중현, 최명영, 김택상, 문범 등 10인의 회화 작품과 정지된 시간성을 보여주는 수묵화 같은 민병현의 사진, 그리고 권대섭, 김익영, 문평, 이강효, 이기조 등 5인의 달향아리 등 작품 60여점을 선보였다.

김석기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장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친숙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 정신문화의 근저를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고 두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의 투바구스 안드레 에수크마나 관장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면서도 당당한 달 향아리를 비롯해 깊이가 우러나는 단색조 회화작품들은 한국인의 정서적 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동시대성을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작품 설명회에서 일간지 콤파스(KOMPAS),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글로브, 메이저 텔레비전 방송사인 RCTI 등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사 취재진과 미술 관계자들은 전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국의 단색화를 느껴 보려는 표정이 역력했다.

‘텃빈 충만’ 전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해 해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현지에 소개하는 ‘해외문화원 패키지프로그램 순회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정재왕)가 주관하고 있다.



Music Movement

한국의 문화외교 자선단체인 뷰티풀마인드 채리티(BMC)가 22일(목)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나래홀과 24일(토) 자카르타 국제학교(JIS) Fine Art Theater에서 “Music Movement” 자선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바이올린 김종훈, 첼로 배일환, 피아노 김주영, 소프라노 윤정인 등 국내 정상급 음악가가 1시간 30분간 공연을 펼쳤다.

특히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김종훈씨의 바이올린과 아들 김태욱군의 가야금 연주는 큰 감동의 박수를 이끌어냈으며, 사고로 목을 다쳐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지만 수년 연습 끝에 성악가로 돌아온 바리톤 이남현 씨의 연주에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척추장애를 겪고 있는 이남현씨는 “모두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다. 그게 우리가 모인 이유” 라고 강조했다.

피아니스트 김종훈 씨는 “장애인 연주자들의 연주회는 실제 연주보다는 준비과정이 더욱 힘들지만 우리가 음악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힘이 난다” 고 전했다.

BMC 관계자는 “한인 학생들의 열정과 아울러 코참과 한국문화원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커뮤니티에서 후원을 해주었기에 뷰티풀마인드콘서트가 실현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뷰티풀마인드콘서트의 수익금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위한 학교 및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쓰이며, 인도네시아 보육원 아이들과 장애인들에게 음악 클래스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뷰티풀마인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벌이는 문화·외교 자선단체다. 국외 한인들을 주축으로 2006년부터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글로벌 CEO 2기 과정 수료식

한국외국어대학(총장 김인철, 이하 외대) 인도네시아 글로벌 CEO 2기 과정을 마친 수강생에 대한 수료식이 31일 코린도 강당에서 열렸다.

외대 경영대학원(원장 권석균)이 주최하고 외대 글로벌 CEO가 주관한 이번 교육 과정에는 수강생 18명이 등록해 경영에 필수적인 강의들을 청강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 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가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영대학원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 CEO가 갖추어야 할 지식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글로벌CEO과정’은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 CEO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전략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마련되어, *조직과 인사 관리 *마케팅 관리 *전략경영 *재무 및 투자관리 *국제경영 *인도네시아 문화의 원형 *리더십과 변화 경영 등 각 과목당 9시간 총 63시간 강의가 진행됐다.

권석균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수업을 마친 수강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진 2기 원우회장은 “원우들과 친목을 유지하며 영원한 외대 동문으로 활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민식 1기 원우회 대표는 “1, 2기 동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적 자산이 풍성해진 것이 이번 졸업의 가장 큰 소득”이라며 “학문과 지성을 겸비한 일꾼이 되어나가자”고 말했다.

기념촬영과 교가제창이 끝난 후 원우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만찬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료증 수여식과 더불어 우수 학생에 대한 수상도 함께 진행됐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개발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성취해낸 이들 졸업생들에게 가족과 친지, 원우회 동문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한국어 교과서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등학생용 한국어교과서 출간, 보급되다!



일시: 2015.2.3(화) 14:00

장소: 한인회관 회의실

참석자: 배재대 측 임중보 교수학습원장, UI 측 임경애 교수(UNAS 한국어교육원장), Rura 교수

내용: 최초의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용

한국어교과서 1,2권 출간 보급기념회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학습열기는 한류와 한국상품의 인기와 함께 날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동반하여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2012년부터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지만 한국어 학습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를 예견한 현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임경애 교수는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선두대열에 있는 배재대학교와 교재발간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여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을 위한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배재대학교에는 KOICA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 대학교 한국학과에 교수로 파견되었던 임중보 교수가 기획처장으로 재직하며 교재발간의 필요성을 숙지하여 즉시 발간이 되도록 기획하였다.

<경과>

배재대학교는 ‘배양영재’,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의 교훈을 실천하고자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에 관심

2012년 7월 배재대 임중보 교수(기획처장) 총괄 기획, 배재대 측 박석준 교수(한국어교육원장) 외 3인, UI 한국학과 측 임경애, Rura, Zaini 교수 합

동으로 집필 시작

2013년 8월 제 1권 출간, 2014년 1월 제 2권 출간
2014.12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3,000권 전량 구입하여 필요한 고등학교에 보급

* 임중보 교수는 2008년 코이카 파견교수로 UI 한국학과에서 1년간 강의한 바 있으며, 이후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한국어 교류협력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에 전국 4,000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간된 한국어교재는 대상이 일반인으로 되어 있어, 고등학생용으로는 적절치 못하였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 Bahasa Korea 1,2 는,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집필된 최초의 교과서인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집필과정에서도 한국의 배재대 한국어교육원과 인도네시아의 UI 한국학과 교수진이 공동참여하여 교과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내용구성은 대화문, 단어, 문법, 연습, 문화, 듣기용 CD등으로 구성하였고, 한국어능력시험 사용어휘 표도 첨부되었다.

(한편 기업후원활동으로써 하나은행이 참여하고, 한국대사관에서 전량 구입하여 고등학교에 보급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한편 하나은행에서 출판을 후원하여 주었고, 현재 이 교과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어 교사들이 현장의 고등학교에서 교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기사제공: 임경애(UI한국어학과 교수)



정의화 의장, 한인동포초청 간담회

지난 해 12월 22일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한인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정의의장은 “인도네시아 정치 지도자들의 한국에 대한 열의와 깊은 애정이 느껴졌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동반성장하길 바라며, 한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더 가까운 나라로 이어져 나갈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며 한인 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코린도장학재단, 인니유학생 장학증서수여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1월 15일 코린도 사옥 홍보관에서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번에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 학생은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어과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 (Brigitta Adriana)으로서 앞으로 1년간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하게 되며 코린도장학재단에서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어과 Zaini M.A. 과장이 참석하여 코린도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으며 정무웅 재단이사장은 장학지원을 받는 Brigitta Adriana 학생에게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와 교육에 관하여 많이 배우고 경험해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기 바라며 인도네시아에 관한 것을 또한 한국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문화홍보대사가 되어 달라” 는 말로 격려했다.

코린도장학재단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서울대, 세종대 및 연세대에 교환학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들이 30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신년 하례회

한국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 신년 하례회가 지난 22일 자카르타 아랑22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 하례회에는 조태영 대사를 비롯해 박동희 평통회장, 강희중 옥타회장, 한인회 김재민국장, 인도네시아 각 언론사 사장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는 2014년 많은 사업을 통해 한민족의 의식을 높이고 봉사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2015년 사업으로는 3.1절 기념행사와 6.25 행사, 북한인권 사진전, 족자 지회 개소식등 굵직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빛사랑의 인니인 수술지원, 자연사랑의 일환으로 쓰레기줍기 캠페인



과 그린인도네시아의 일환으로 나무심기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제공: 자카르타경제신문)

UPH대학생, 한국문화탐방



(UPH대학 건축학과 학생의 한국 방문 기념사진)

지난 3일 땅그랑 소재 UPH 건축학과 학생 60여명과 교수 10여 명이 한국건축의 견학을 위해 11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각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진 한국 문화포럼과 UPH 대학생 문화포럼의 주최로 방문하게 되었으며 Alvar교수와 Felia교수의 인솔로 UPH 대학의 건축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방문단이 구성되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건축문화를 견학하고 왔다.

방문 일정으로는 부산에서 5일, 서울에서 5일간의 일정이었으며 부산에서는 부산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는 영화의 전당과 거가대교(해저터널), 감천마을, 삼성조선등을 견학했고 경주, 안동 화회마을을 거쳐 동대문 플라자, 파주 북시티, 파주 해이리 영어마을, 인사동 국립박물관, 경복궁, 청계천등의 한국 건축의 전통과 수준 높은 문화와 기술을 견학했다. 특히 부산에서의 일정은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담시 조꼬위도도 대통령이 방문한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차량, 숙소 및 부산일정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한편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오는 8월에는 UPH대학을 비롯해 트리삭띠대학, 자카르타 종합예술대학, UNAS대학, UNTAR대학, 에사웅굴대학, 따루마나가라등 8개대학에서 학생 약 170여명이상의 대대적인 한국 문화체험단을 구성해 방문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 문화포럼은 인도네시아 각 대학교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방문은 대학생 한국문화포럼의 결성 및 활동의 신호탄으로 향후 고등학생 한국 문화포럼이 결성될 예정이다.

(The Media Korea)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제5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시상식 사방(Sabang)에서 메라우께(Merauke)까지의 전통 춤과 하나되다



2015년 1월 10일 롯데쇼핑 4층 아이스펠리스홀에서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이사장 송재선, 원장 사공경) 주최로 제 5회 인터넷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로 자리를 꽉 채운 시상식은 성공리에 치러졌으며, 참석한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흥겨운 시간이었다.

바루 다땅(baru datang)인 나는 흥분 속에서 수상작을 읽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열정이 일어났다. 또한 문화연구원이 많이 알려져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였다.

주인도네시아 조태영 대사님께서서는 감성을 글로 풀어내어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인터넷 공모전 시상식을 축하하시며 글로써 인도네시아 문화와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하셨다.

아름다운 앙글롱 음악이 흐르면서 시상식은 시작되었다. 첫무대인 앙글롱 연주는 수상자들이 함께 준비하여 선보이는 공연이었다. 컷가에 청아하고 생동감 있는 울림으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다음 본격적인 축하공연으로 인도네시아의 가장 위쪽인 서단에 위치한 사방과 가장 아래쪽인



일반부 대상: 윤난희

학생부 대상: 김혜인

동단에 위치한 메라우께까지의 다양한 전통춤을 볼 수 있는 풍요로운 잔치가 시작되었다.

첫번째 수마트라 아제 가요 지방의 사만가요 춤은 한국과는 다른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댄서들의 호흡을 보면서 사람의 몸이 악기가 되는 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의 손이라고도 불리는 이춤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접시를 들고 관성을 이용해서 현란한 움직임으로 춤을 추는 접시춤 역시 멋지게 공연되었다. 이어서 서부자바지역의 순다족의 춤이라고 알려진 자이뽕 춤은 전통무술처럼 역동적이었다. 댄서들의 몸짓, 표정 모두 춤에 몰입되어 집중할 수 있었다. 문화라는 것이 보편적이면서도 각각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택견과 비슷하지만 그들의 부족만의 몸짓을 춤으로 더욱 잘 볼 수 있었다.

다음 공연으로 누사똥가라 지역의 춤과 사산도 연주가 이어졌다. 로깅그랑 춤은 동부 누사똥가라 지역의 망가라이 부족 춤이다.

아름다운 선율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사산도 연주는 그 안에 슬픈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구슬프면서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수상식과 교차로 진행된 축하공연은 후반부로 갈수록 열기가 더해져 갔다. 기링기링 춤은 제목만 들어도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춤의 이름은 갈리만탄의 언어로 ‘곡물이 들어있는 밤부’ 라는 뜻이다.

이어진 춤은 빠글루 춤이다. 남부 술라웨시 지역의 토라자 부족의 춤으로 군인들이 전투에서 돌아오거나, 이겼을 때, 기쁨의 표현으로 추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연된 맘브리 춤은 서부 파푸아의 지역의 맘브리 부족의 춤이다. 파푸아 전사들의 영혼을 표현한 남성들의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액세서리들과 파푸아 무기를 가지고 춤을 추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힘 있고 절도 있는 춤은 예술 그 자체였다. 몸에 그려진 문양도 예술적인 멋을 한층 더 해주었다.

축하공연마다 인도네시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춤을 선보였기에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한 민족으로 살아와 문화적인 다양성에 있어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한편의 예술작품 같았던 시상식 행사를 통해 감성이 더 풍부해지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상이 글의 우열을 가릴 순 없지만 인도네시아 문

화를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단정한 어투로 잘 풀어낸 이야기로 방정환 씨와 박다솔 양의 이야기가 최우수상(한인회장상, 상공회의소회장상)을 받았다.

대망의 대상 시상식은 주인니한국대사상과 주아세안대사상으로 일반부 윤난희 씨, 학생부 김혜인 양이 수상했다. 김혜인 양은 “장래의 목표를 잡지 못하고 허둥댈 때 이글을 쓰게 되어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관객들과 함께 앙글룽을 배워서 연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롱까각뚜아(Burung Kakak Tua) 라는 곡을 즉석에서 배워 연주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시상식은 마무리되었다.

하소라 (연구원인턴, 가톨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후원:재외동포재단/PT.TAEWONINDONESIA/ PT. PRATAMA ABADI / PT. CIPTA ORION METAL / LOTTE MALL AVENUE

찬조:CJ TOUSLES JOURS/PT. LEO KORINSIA



인도네시아 ADRF 드림센터 출범식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이하ADRF, 회장 권이중, 부회장 선종복)는 코이카 지원사업으로 2015. 1. 27(화) 오후2시에 TARUNA JAYA 직업훈련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드림센터는 한국재생컴퓨터센터(KCR)와 협력하여 작년 7월부터 계획하고 준비 하였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길거리청소년 자활 지원 사업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5년 민관협력 단년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전자약정을 체결하였다.

ADRF는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KCR 컴퓨터 전문가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TARUNA JAYA 직업훈련센터로 해외사업 팀 및 ADRF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을 파견하여 자카르타에 ADRF 드림센터를 설립하고, 길거리 청소년 100여명에게 자활을 위한 7가지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원으로써 작년 7월 ADRF가 사업타당성을 위하여 실시한 지역 조사 당시 직업훈련센터장으로부터 신설된 PC교육반의 교육 내용과 교사 역량강화를 요청 받았고 이에 ADRF와 KCR은 지속적인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직업훈련센터 내에 재생PC생산과 PC수리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훈련생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선종복 ADRF 부회장(現 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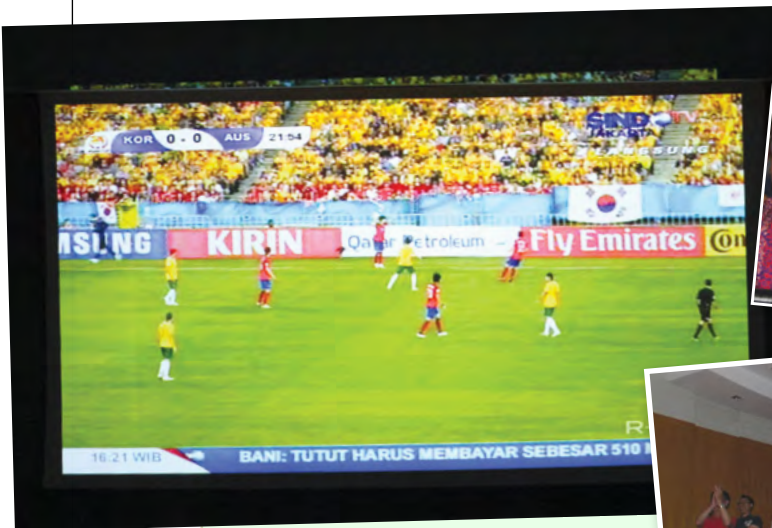
도중 교장, 前 JIKS교장)이 직접 참석하여 KCR 전문가와 합동으로 TARUNA JAYA 직업훈련센터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며, 김병관 코이카 소장 및 한인·인니 주요 인사들을 참석하여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ADRF 드림센터는 직업 교육 뿐만 아니라 기본 문해 교육, 인성교육 등을 길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길거리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과 교양, 기술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고, 그들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ADRF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소개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ADRF, Korea Asia Development Relief Foundation)는 1994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전쟁 난민 구조활동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태동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ADRF는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물림 되는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HOPE = EDUCATION” 이라는 슬로건으로 빈곤아동들을 위한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11개국에 희망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



1월 31일 자카르타 국제학교 나래홀에서 아시안컵 결승경기 관람 및 응원의 한마당을 펼쳤다. 각계 각층의 남녀노소 동포들이 우승을 기원하는 한마음으로 뜨겁게 응원하였다. 한국 대표팀은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대2로 호주에 패하여 아시안컵 준우승을 차지했다.



KOICA, 97기 WFK 봉사단원 인도네시아 파견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파견한 신규 봉사단원 4명이 지난 1월 7일 자카르타에 입국하여, 이튿날 1월 8일 오후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를 예방하고 현지 적응에 돌입하였다. 금번 봉사단원은 농업 분야 2명, 컴퓨터교육 분야 1명, 한국어교육 분야 1명으로 총 4명의 단원이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조태영 대사는 단원들에게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곳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양국관 후호협력 증진과 인도네시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인도네시아를 찾은 단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총 39명의 KOICA 봉사단원들이 교육,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에 새로 파견된 단원들은 깔리만탄 빨랑까라야 농수산업청 등 각기 다른 기관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2년간 분야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기를 더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이들 봉사단원들은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약 8주간 현지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본 교육은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자세 확립, 공동체 의식 함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어 심화 학습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단원으로서 활동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단원들이 현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봉사활동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형성하여, 각 지역에 파견되었을 때 자랑스러운 해외봉사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KOICA 인니사무소-인니 국가사무처 WFK 봉사단 파견 MOU 체결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지난 1월 30일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와 WFK 봉사단 파견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금번 체결식에는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및 국가사무처 Rika 해외기술협력국장을 포함한 인니 외교부, 교육부, 종교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금번 MOU는 기존에 맺었던 MOU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봉사단을 접수하는 개별부처의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조항과 봉사단 운영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협의하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과 상호협약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켰다. 봉사단 파견동의나 절차에 대한 협력과 봉사단원의 활동기간에 대한 사항 등도 MOU 내 문안으로 승격시켰다.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은 금번 체결식 인사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봉사단원들을 파견한 나라 중 하나로 그동안 봉사단원들의 헌신적 활동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국가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며,



“오늘의 MOU가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우애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또한, 인니 국가사무처 Rika 해외기술협력국장은 “현장에서 각 기관의 평가를 볼 때 WFK 프로그램과 봉사단원들은 매우 우수하였으며, 봉사단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며, “이번에 체결된 MOU를 통해 더 나은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가사무처에서도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KOICA 봉사단원 규모의 획기적 증대와 함께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봉사단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015년 맞이 감사와 자선의 연하작품전

2015년 맞이 <감사와 자선의 연하장작품전>을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잘 마쳤습니다.

24(WED). Dec. 2014 부터 10, Jan. 2015에 걸쳐 Java Palace Hotel 문화홀에서 열린 이 행사는 Java Palace Hotel이 주최하고, 서예동호회 자필묵연(회장 제경중)이 주관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동포들로서는 한민족의 아름다운 세시풍속을 되새기는 일이었습니다. 타국인들에게는 한국인의 전통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이벤트였습니다.

연하장 작품은 서예와 문인화 소품이었습니다. 작품에는 새해를 맞아 받는 이와 주는 이의 이름을 함께 담아 감사의 마음이 오래도록 남도록 했습니다. 작품은 자연미 넘치는 프레임으로 꾸며 사무실, 거실 식탁 옆 어디에 걸어도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한 연하작품은 모두 인재 손인식 작가가 제작하였으며, 작가와 주최처인 Java Palace Hotel과 주관처인 자필묵연(회장 제경중)이 자선 기금 마련에 적극 동참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 조성된 기금 3천 6백만 루피아는 끌라빠 가딩의 밥퍼해피센터와 메단 수녀원, 찌까랑 고아원 YAYASAN GEMA INSAN AMANAH에 정성으로 전달되었습니다.

2015 乙未年이 청양의 해이므로, 羊(상서로울 祥과 동일하게 쓰임)자 작품을 특별히 제작하여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양띠생 중 한 사람을 추첨(땅그랑 지역 김이춘)하여 祥자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양은 상서로움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새해에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각 가정에 양띠처럼 물려들기를 기원합니다.

<메단 수녀원 소개>

메단 수녀원은 현재 한국관구 소속 선교사 수녀 3명, 현지 유기서원자 8명, 현지 수련자 4명, 현지 청원자 8명 총 23명이 봉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아와 부랑아, 빈민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유치원, 탁아방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가정지원 및 학비지원, 무료 의료 봉사를 합니다.

<찌까랑의 고아원> 소개

찌까랑의 고아원 YAYASAN GEMA INSAN AMANAH는

원생 수 총 65명(초 26명, 중 17명, 고 9명, 미취학 13명)으로 전달된 성금은 주로 원생들의 학비 지급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고아원은 2013년도부터 3층으로 계획된 본관 건물을 건축 중이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1층까지 골격만 시공되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밥퍼해피센터 소개>

밥퍼 해피센터는 현재 한 주간에 3회 무료급식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번 사역에 600명분으로 양을 늘려서 제공하므로 한 주간에 1,800명분의 식사를 빈민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민학교 사역의 연장선상으로 중학생들에게 직업훈련교육(한국어, 영어, 컴퓨터, 성품)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관처 자필묵연 소개>

자필묵연은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통의 필묵예술 동호회입니다. 약 50여명의 회원이 순수하게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회에 걸쳐 정기전을 가졌고, 한국내의 공모전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사제공: Java Palace Hotel)

한민족동포대상 2014. 자랑스러운 한국인, 엄정호대표이사(재인도네시아한인회 부회장)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체가 아름다운 엄정호 사장. 인도네시아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아픔도 겪었지만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까지 품어주는 멋진 남자다.

엄정호 PT.ING 인터내셔널 사장은 2011년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모범 우수기업 산업부장관상과 모범 납세기업표창도 받은 성실 기업인으로 꼽히며 현지 지역사회에 봉사와 장학금등 지역에 환원하는 기업으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국가 브랜드가치를 선양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일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섬김과 봉사에 서서...

엄 사장은 사업뿐만 아니라 반동지역 한인회에서 큰 활약을 했다. 그가 2009년 한인회를 맡을 당시만 해도 교민들이 모여 맘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열악했다.

엄 사장은 “내가 회장 맡고 재정적으로 참 막막했다. 교민들이 회비를 내긴 했지만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비를 좀 보태서 교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SETRASARI KULON 1 NO.3에 2층으로 된 건물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고 한다. 1층에는 교민들의 만남의 장소,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소로, 2층은 토요 한글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토요 한글 학교는 4개의 교실과 도서관으로 구성하여 학생들과 여성교민들이 자유롭게 문화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교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엄 사장은 한인회 회장은 봉사직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인회 회장은 명예와 감투가 아니라 교

민들이 화합하고 해외생활에 어려움을 나누며 위로하는 자리” 라고 말한다.

엄 회장도 교민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소한 일부터 하나하나 신경쓰며 동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엄 사장은 “한인회를 맡고 있을 때 불의의 사고와 병환으로 다섯분이 돌아가셔서 화장하여 고국으로 유골을 보낸 적도 여러번 있었다. 유독 내가 회장할 때 작은 반동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우스갯소리로 덕이 없는 회장이라고 하더라” 하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엄 사장이 제일 안타까워 하는 것이 있다. 그는 “교민 사회에 사건 사고가 없을순 없지만 그 원인을 보면 자신들의 불찰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술을먹고 사고가 났다든지, 음란행위로 경찰에 잡히는 경우든지, 여기 화폐 단위가 한국보다 낮으니까 돈을 펄펄 쓰면서 방탕한 생활로 교민 사회가 시끄러울 때가 많아 안타까우면서도 인도네시아인에게 민망하고 죄송하다” 면서 대한민국 교민으로써 품위를 지켜주길 바랐다.

“지금도 감사한 것은 부족했던 회장과 함께 열심을 다해 동참해서 봉사해준 회장단과 운영위원회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라고 말한다. 현재 반동 지역 교민들은 제조업과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교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천오백명 정도의 교민이 있다.

반동 한인회 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교민 약 오만명)에서 부회장으로 많은 지역 한인회와 교류를 위한 역할과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여러 곳에서 경제인으로 활동하는 모임(사)세계한인 무역협회에서 엄사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회 부회장으로 세계 경제 정보 교류와 한인들의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무역 스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차세대 경제 활동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젊은 차세대의 활발한 경제 활동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대국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고 여러번 강조를 한다.

(Newstoday, 2015. 1월호에서)

JIKS

샤프론 봉사단 녕마주이 촌 방문

2014년 12월 31일(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교장 김승익) 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샤프론 봉사단과 함께 서부 자카르타 글로골지역 꼴롱 즈바판에 위치한 녕마주이 촌을 방문하여 쌀 5kg짜리 140부대(약 8백만 루피아 상당)를 기증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실시한 본 행사는 지난 12월 21일 샤프론 봉사단이 주최한 ‘행복마켓’ 바자회 수익금과 JIKS 대민지원비를 합하여 준비하였으며, JIKS 김승익 학교장, 샤프론 봉사단 김홍삼 단장, 난다니안 빈민 아동교육 재단 원장 루스틴 여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하였다.

고가도로 밑 그늘에 위치한 이 녕마주이촌은 각 지방에서 모여든 빈민들이 약 140호의 가구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최근 입주한 자들부터 약 10여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며, 대다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판자를 열기설기 엮어 만든 가옥과 공동 우물 2개를 모든 주민이 사용하는 불결한 환경 속에



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주변의 공립학교에서 ‘자녀교육’ 을 시키는 것이다. 마을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거주지 주변에 위치한 신호등 근처에서 구걸을 하거나, 버스를 타고 시내를 누비며 멩아멘(ngamen: 노래하며 구걸을 하는 행위)으로 용돈을 벌고 있다.

본 행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분투하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이런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져 한인사회와 자카르타 지역사회가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섬기는 작은 불꽃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JKKS

36회 초등학교 졸업식

28일 수요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 나라홀에서 '36회 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승은호 한국국제학교 재단 이사장, 신기엽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박동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회장 등 많은 내빈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해 줬다.

국민의례 후, 담임선생님은 애정을 듬뿍 담아 55명의 졸업생을 소개하였고 가운데 학사모를 갖춰 입은 졸업생은 단상에 올라서 교장 교감선생님, 내빈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졸업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졸업장 수여식에 이어 대사상 박미소, 학교장상 박설희, 한인회장상 김동욱, 재단이사장상 정수환 학생 등이 수상했다.

김승익 교장은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 디자인하고 키워나가라”고 말했고, 조태영 대사는 “감사하는 마음, 변화된 모습,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였다.



승은호 재단 이사장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당부하였고,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 “마음껏 뛰어놀다보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학창시절 좋은 추억을 만들라”고 강조하였다.

졸업생들은 학부모와 후배들의 축하 속에 졸업장과 꽃다발 그리고 선물까지 한 아름 받고 활짝 웃었다.

재학생 대표로 11학년 이진환군이 송사를 하였고, 졸업생 대표로 고원복 학생이 답사를 하여 선 후배간에 석별의 정을 나누었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의 앞날에 많은 열정과 노력이 있기를 기원하며 졸업식을 마쳤다.





제 16회 고교과정 졸업식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불리는 졸업식 노래가 29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 나래홀에서 울려 퍼졌다.

인간다움과 능력을 갖춘 미래 사회의 주인공을 교육목표로 하는 JIKS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많은 내빈 등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졸업생 117명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한 명씩 단상에 올라가 내빈들과 축하 악수를 나누며 감동적인 졸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대사상(이수하), 학교장상(이수진), 재단이사장상(송낙원), 한인회장상(박지호), 민주평통상(임하원), 동창회장상(이진환), 시민자원봉사회장상(박주

영), 장한어비이상에는 안익준 학생의 어머니께 수여했다.

김승익 교장은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훈시가 된 회고사에서 졸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도전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승은호 재단이사장은 “앞날에 신세계가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웅대한 꿈을 가져 세계무대에 도전하며 자랑스러운 직스인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조규철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여러분들은 미래의 희망이다.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진학상황(합격기준, 중복합격 포함)

(2015년 1월 29일 현재)

대학	서울	연세	고려	성균관	서강	한양	이화	중앙	경희	외대	인하	건국	동국	홍익	의예과	기타	계
합격자	2	16	16	20	6	20	12	30	8	8	4	16	5	8	5	78	254

*졸업생 현황

졸업생수

진학현황

남	여	계	한국	해외	미확정	계
61	56	117	112	3	2	117



2015년 1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 '다르마시스와' 접수 시작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인 '다르마시스와' 접수가 시작됐다. 다르마시스와는 인도네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들의 학생들을 위해 인니어, 예술, 요리, 관광분야를 현지에서 1년간 연수할 수 있도록 인니 정부가 준비한 1년 장학 프로그램이다.

다르마시스와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정부 측에서 학비는 물론 매달 생활비(약 2,000,000루피아)를 제공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인도네시아 유학을 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 장학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이며,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이 8월말에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최근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이 인기를 얻으며, 다르마시스와 프로그램도 다수의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다르마시스와를 마친 뒤 현지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다르마시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말랑에서 유학한 이군은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글로벌 지수를 높이는 동시에 인니 문화에 녹아들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 였다며,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적 소지자일 것, △만 35세 미만(1980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영어 혹은 인니어 소양 갖춘 자, △전문분야 활동이 활발한 자, △신체건강자.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르마시스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르마시스와 지원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2월 25일(수) 16:00까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또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상세 구비 서류(영문)는 하기와 같다.

△신청서△서약서△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추천서△건강진단서△영어 인증서△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여권 사진 5매 △지원자 DB

단, 지원자 DB의 경우, 인도네시아 대사관 메일로(hnpark@moe.go.kr) 로 보내야 한다.

다르마시스와 지원 관련한 정보는 국립 국제 교육원 홈페이지(www.niied.go.kr) 또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02-783-5675, indonesia73@naver.com)에 문의하면 된다.

아흑 “목숨 위협하는 미국산 사과 판매 전면 금지”

자카르타특별주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박테리아가 검출된 수입 사과 그레니 스미스(Granny Smith)와 갈라(Gala)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자카르타 정부의 결정은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비다르트 브로스(Bidart Bros), 캘리포니아(California), 미국(Amerika Serikat)산 사과 수입 금지 정책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는 27일 오후 주청사에서 “현시간부로 자카르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리스테리아 박테리아가 검출된 수입 사과 그레니 스미스와 갈라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무역부와 농업부 그리고 보건부 식품의약감독청(Badan POM)은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산 수입 사과 그레니 스미스와 갈라의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의약감독청 관계자는 “우리는 먼저 식품 업계 및 수입업체들에게 언급된 2가지 사과의 유통·판매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수입금지 조치 전체 관리는 농업부에서 맡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트েরিয়া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지난 8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이 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어도 별문제가 없으나 임산부나 신생아, 노약자에게는 유산이나 폐혈증, 수막염, 식중독 등을 유발시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앓아갈 수 있다.

한편, 정부 당국이 뜻밖에 신속하게 수입 사과 문제를 처리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시기적절하고 알맞은 조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영섭 기자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동부자바주 뎡기열 비상! 25명 목숨잃어

우기가 계속되면서 동부자바주에서는 뎡기열로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동부자바주정부는 25일, 주 내 11개 시·군에서 뎡기열이 유행하고 있다며 비상사태(KLB)를 선포했다. 뎡기열 비상사태 선포가 발령된 지역은 줌방군, 반유왕이군, 뿌로볼링고군, 끄디리군, 뜨렝갈렉군, 모조 끄르또군, 빠르까산군, 스프눙군, 마디운군과 마디운시, 딸룽아궁군 등 11개 지역이다.

하르소노 동부자바주 보건국장은 현재까지 주 내의 총 38개 시군에서 1,054명이 뎡기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자체는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캔과 빈 병을 방치하지 않고 채우기 ▽저수조의 물을 자주 교체할 것 ▽물동이 뚜껑을 닫아놓을 것 등 '3M' (menutup, mengubur dan menimbun barang-barang yang tidak terpakai di sekitar lingkungan.) 뎡기열 퇴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뎡기열은 보통 우기인 1월에 가장 많이 감염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뎡기열 감염자 8,906명 중 973명이 1월에 감염됐다.

뎡기열은 일반적인 모기와 달리 낮시간에도 활동하며, 물리는 순간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뎡기열에 걸리게 된다. 감염되면 고열에 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 뎡기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날 것보다는 익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데벙 '오토바이치기' 강도단 기승

데벙시 주민들이 최근 한 달새 발생한 두 건의 오토바이치기 사망사건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오토바이치기 범인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일반인을 자신들의 오토바이로 쳐서 넘어뜨린 뒤, 날카로운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범죄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주안다 대로와 마르곤다 대로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수법으로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이들 무리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범인 1명을 사살했고 훔친 오토바이 7대를 압수했다. 나머지 범인들은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

데벙경찰당국은 또한 브레만(Preman·건달) 소탕, 주류단속, 도박단속을 벌였다. 27일 경찰은 데벙 내 한 터미널에서 상습도박판을 벌인 브레만 일당 수 십명을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백 여명의 주류도 함께 발견됐다.

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당국은 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UI)와 자카르타 경계 지점, 쥘네레와 자카르타 경계지점, 쥘빠에운, 보고르와 자카르타 경계지점, 주안다 등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람뽕서 괴한이 쏜 총 맞은 저널리스트 숨져

25일 오후 8시 경 수마트라 람뽕 지역에서 한 저널리스트가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3명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베니 파이살(42세) 포커스 람뽕 위클리 편집장이며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다르 람뽕 경찰청 대변인은 “한 발의 총성이 울렸으며, 피해자는 총에 맞아 사망했다” 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집에 설치된 CCTV에서 피해자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남자 3명을 발견,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는 마테체를 꺼내 들고 집 밖으로 나온 모습이 포착되었다. 베니가 밖으로 나오자 범인 3명 중 한 명이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총성을 듣고 놀라 뛰어 나온 이웃 주민이 총에 맞아 숨진 베니의 시체를 발견했다.

경찰청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베니가 취재해 오던 사건들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며, 사실 관계가 명확해지면 밝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포커스 람뽕은 최대 이슬람 조직인 나들라똘 올라마(NU) 소속 청년들이 중심이 된 언론 조직으로 파주론 나지아 아흐마드가 설립자다. 파주론이 민주당 비서가 되면서 포커스 람뽕 편집장직은 베니에게 넘어갔다. 지역신문 중 포커스 람뽕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저널로 유명하다.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쁘레미움 가격 또 하락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제유가시장 내림세를 반영해 보조금연료 휘발유 쁘레미움(Premium)과 경유 솔라(Solar)의 가격을 다시 인하했다. 쁘레미움은 6,600루피아, 솔라는 6,400루피아로 각각 인하됐으며 19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됐다. 이달 1일 정부는 장관령 No39 Tahun 2014를 공포하며 보조금연료 쁘레미움의 가격을 기존 8,500루피아에서 7,600루피아로, 솔라의 가격을 기존 7,500루피아에서 7,250루피아로 인하한 바 있다.



SAVE KPK

부패방지위원회(KPK) 청사 앞에서 23일 한 개인 시위자가 시민단체와 함께 익명을 의미하는 어나니머스(anonymous) 가면을 쓰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밤방 위조안또 현 KPK부위원장을 지난 2010년 중부 깔리만탄 서부 와랑인시 지방선거 소송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에 대해 KPK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노동자 등은 경찰 측에 반대하며 조코위 대통령에게 밤방 KPK 부위원장은 무죄라고 호소했다.



정글 속 신선 놀음

김자형(자카르타 거주)

칼리만탄은 웬지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었다. 오지, 정글, 쉽게 갈 수 없는 곳…… 궁금하기도 하지만 뭔가 힘들고 불편해서 탐험가들이나 갈 수 있는 곳이라 막연히 생각하던 곳이다.

우기인데다가 불행한 비행기 사고 소식이 채 잊혀지지 않아 불안한 마음을 애써 밀어내며 오른 여행길이었다. 익숙지 않은 항공사 이름이 마음에 걸렸지만 수속에서 이, 착륙 모두 순조로웠고 비행시간 한 시간 여 정도로 마음 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 팡갈란 분 (Pangkalan Bun) 공항에 내리자 시원하게 눈에 들어오는 푸른 하늘과 구름이 불안감은 간데 없이 날려버리고 스멀스멀 좋은 예감이 밀려든다.

이번 2박3일 칼리만탄 여행의 메인 테마는 오랑우탄과의 만남! 오랑우탄을 만날 수 있는 탄중푸팅 국립공원 (Tanjung Puting National Park) 과 캠프 리키 (Camp Leakey)는 배로밖에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칼리만탄 여행은 주로 뱃길을 따라 이루어지고 취식과 숙박이 가능하게끔 건조한 모터를 단 목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를 끌로톡 (Klotok)이라 부른다.

지붕이 있어 그늘을 만들어 주고 널찍한 테이블과 의자뿐만 아니라 깔끔한 커버를 씌운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다.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늑하다.

배는 지체 없이 출발하여 세코너 (Sekonyer)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흙탕물 빛의 강을 조금만 헤쳐가면 양 옆으로 뿅뿅한 밀림이 나타나며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록 강폭이 좁아지면서 물 빛도 점점 맑아진다. 물 위에 흠뻑리듯 떠 있는 수초가 운치를 더한다.

밀림이 뿜어내는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나아가는 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과 나뭇잎에 둘러싸여 있으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거대 도시에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비현실적

으로 느껴진다. 그냥 한 없이 이렇게 배만 타고 가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신선 놀음이 따로 없다. 하지만 어디서든 먹는 즐거움을 뺄 수 있을까?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나 싶더니 점심이 나온다. 순박한 현지 스태프들은 뿅뿅이 풀 먹인 셔츠에 나비 넥타이 대신 반바지 티셔츠에 맨발 바람이고 샹들리에와 은 식기는 없지만 맛깔스러운 일식 삼찬이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은 호화 크루즈선이 부럽지 않다. 후식으로 나온 과일까지 먹고 나니 배가 탄중푸팅 선착장에 다다랐다.

울창한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로 시원한 숲 길을 따라가니 나무들과 땅이 뿜어내는 촉촉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에 꽤 속까지 개운해지는 기분이다.

발 디딜 때 마다 느껴지는 부드러운 땅의 쿠션감이 얼마만인가? 단단히 벌레 물리지 않는 약을 챙겨 바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덤벼드는 벌레도 적다. 적당히 땀이 나면서 운동이 되었다 싶을 때 즈음 널찍한 공간에 오랑우탄들이 나타났다.

인간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고는 해도 자연 속에서 보는 오랑우탄은 동물원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경이로웠다.

식사를 마치고 어슬렁거리며 돌아가는 오랑우탄과 헤어져 배로 돌아가는 길은 오던 길보다 훨씬 짧다. 배에 다 다를 즈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반나절 지낸 배를 보니 마치 집으로 돌아온 듯 기쁘다.

빗줄기를 뚫고 배가 출발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가 간식으로 나왔다.

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비에 젖어 한결 싱싱한 나무들을 바라보며 먹는 옥수수! 옥수수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싶다.

우리는 인원이 8명이라 씻고 화장실 사용하는 문제로 잠은 호텔에서 잤지만 끌로톡 위에서 잠자는 게 가능하다. 가끔 마주치는 다른 배 위에는 모두 서양 관광객들 일색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배 위에서 숙박을 하는 듯 했다.

호텔에 짐 정리를 하고 간단히 씻은 후 다시 배에 올랐다.

밤 배 나들이의 포인트는 반딧불과 선상 촛불이다.

적당한 포인트를 찾아 배를 정박시키고 갑판 위를 밝혀두었던 불을 끄자 여기 저기 반짝이는 반딧불에 다들 탄성이다. 이 때 반딧불 한 마리가 호기롭게 배로 뛰어든다. 동심으로 돌아간 우리 손에 쉽사리 반딧불이 잡혔다. 빈 물명에 가두고 실컷 구경을 하고 나니 집으로 보내주고 싶어졌다. 잡아갈 때는 언제고 입구를 못 찾고 뱅뱅대는 녀석을 모두 열심히 응원한다. 성원에 보답하듯 힘차게 하늘로 반딧불이 솟아오르자 마술사 모자에서 토끼라도 나온 양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식탁 위에 촛불을 밝히고 둘러 앉아 선상디너가 시작되었다. 없던 사랑도 뽕뽕 샘 솟아나고 앞에 앉은 누구라도 세상 최고 미남 미녀로 보일 로맨틱한 분위기다. 주방 아줌마를 업어가고 싶을 만큼 모든 음식이 맛있다!

매트리스에 몸을 누이고 도란도란 일행들의 수다

를 듣다 선 잠이 들었나 보다. 깨어보니 어느새 호텔 선착장이다.

따뜻한 햇살도 담뱃 썩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도 한지라 설은 자리지만 단잠을 잤다.

다음 날도 즐거운 하이킹과 오랑우탄, 큰코 원숭이, 검은 손 원숭이 등 각종 동물들과의 만남, 맛있는 식사가 이어졌다. 맑은 하늘과 오후 끝에 내리는 운치 있는 비로 날씨는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갈리만탄! 알고 보면 그리 멀지 않은 편안하고 멋진 이색 여행지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다.

배만 예약하면 공항에 픽업에서 돌아가는 차편까지 모든 걸 선주가 패키지로 준비해준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끝로톡 선주들의 연락처가 나온다. 여행 에이전시 보다는 선주들을 다이렉트로 컨택하는 편이 좋다.

2박3일이 스탠다드 코스이지만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아쉬운 대로 주말을 이용해 1박2일만으로도 정취를 느껴볼 수 있을 듯 하다.

조만간 같이 가지 못한 남편과 다시 한 번 갈리만탄을 찾을 것 같다.





데이빗 호크니의 <개로비 언덕>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작품 : 개로비 언덕 (Garroby Hill), 1998,
Oil on canvas, 152.4 x 193cm
데이빗 호크니 (David Hockney, 1937~) 영국

좋은 그림이란 어떤 그림일까?

유명한 그림? 비싼 그림?

좋은 기가 전달되는 그림?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제각각 다른 느낌, 이미지, 기운을 받게 된다.

그처럼 어떤 그림 앞에 서면

평온해지기도, 화사한 봄별을 누리기도, 어떤 기억을 되살리기도,

때론 공포나 나른함, 기쁨, 사랑..... 등등 온갖 유형무형의 기운과 이미지들을 받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난 다음에도 제 나름의 생명을 지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재생산 되는가보다.

그런 의미에서 당당하면서도 섬세하며, 독특한 색감을 지니고, 젊게 다가오는 그림이 있다. 데이빗 호크니(David Hockney)의 풍경들.

영국출신 팝아트 화가로 일찌기 성공가도를 달리며 80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최고의 작가로 회화, 판화, 사진, 영화, 무대장식, 일러스트레이션, 최근의 아이패드를 이용한 그림까지. 게다가 지치지 않는 호기심과 실험정신, 학구적인 태도로 펴낸 미술관련 서적들...

데이빗 호크니는 다방면에 명민한 눈을 반짝이는 르네상스적 인간이기도 하고, 피카소를 능가하는 멀티플레이 괴물로도 일컬어진다. 70년대에 수영장 시리즈와 인물화를 통해서 그는 평범한 주제를 묘한 분위기로 낯설게 그리면서 이미 스타급 화가가 되었다.

호크니의 90년대 작품 <개로비 언덕, Garroby Hill>

일단 작품의 크기를 상상하면서 보자. 젊고도 감각적인 색감과 역동적인 구도는 강한 흡인력이 있다. 아카데미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원근법도 아니고, 평면적임에도 깊은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색을 썼음에도 사실적인 생명력이 넘친다.

들여다 보고 있으면 약간 숨이 차 온다. 지금 막 이 화면의 중앙에 자리잡고 튀어오를 듯한 도로를 달려온 느낌이다.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은 성취감마저 느끼게 된다. 21세기의 가장 생동감있고 힘찬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호크니의 풍경들 중 하나이다.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은 길이가 12m에 달하고 높이가 4.5m 이상인 거대한 작품이다. 이 큰 작품들을 위해서 그는 72세에 생애의 가장 큰 작업실을 마련했다고 한다. 작업실을 5년 임대하면서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다고 하니,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젊음과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 캔버스 50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작품과 손바닥만한 아이패드로 동시에 작업을 하는 능소능대함에 이르면 그에게서 도인의 풍모마저 느끼게 된다.

자신만만하고 스타일리쉬한 색감과 당당한 구도.

힘찬 파동으로 다가오는 풍경의 도로.

한 발 내딛은 2015년엔 저 확실한 길로 질주하고 싶다.

세 단어

윤난희 (JKS 교사)



덥기만 하고 계절이 없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호기심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시작한 인니의 생활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한결같은 더위인줄 알았는데 미묘한 계절감이 있고, 인니의 떠오르는 태양과 저물어가는 하늘의 석양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가끔씩 귀밑에 콧아보는, 깜보자가 날려주는 달콤한 향기는 몽롱한 낭만을 꿈꾸게 한다. 이렇게 조금씩 인니를 알게 되고 인니의 말들이 늘어가는 중에도 내가 잊지 못할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 이곳을 생각할 때마다 함께할 소중한 추억들이 될 이 단어들에는 인니에서의 아픔과 함께한 성숙, 배려에 대한 고마움,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유머가 있어서이다.

하나, cicak(찌작)을 아시나요?
 찌작찌작, 우는 소리가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파충류과의 도마뱀이다.

인니에 발을 디딘지 한 주도 되지 않아 딸아이가 한 마리의 cicak과 친구가 되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해서 이 곳 사람들은 집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나는 참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엄마, 애가 cicak 이래. 넘 예쁘고 귀엽지...”
 라며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 얼굴에 cicak을 들이키는 딸을 보며 낯선 땅에서 호기심거리라도 찾아낸 아이에게 저리 치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알게 된 cicak 이란 단어, 아이의 cicak 사랑은 잠자리까지 데리고 갈 정도였다.

오고가는 교감은 살아있는 생명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이가 애정을 쏟는 cicak은 우리 집 벽시계 뒤를 넘나들며 도망도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면서 첫 주말을 맞게 되는 토요일 아침, 길 고양이 한 마리가 집 화단에 놀러 왔다. 신이난 우리 딸은 고양이와 금새 친구가 되어 한 참을 놀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났는지 얼른 집으로 들어갔다 나오며 야옹아! 내 친구야, 사이좋게 놀아야 돼. 하고는 살포시 고양이

이 앞에 놓아 주었다. 아뿔싸! 순간 울음바다가 되었다. 야옹이는 이게 웬 떡이나며 날름 cicak을 삼켜 버렸다. 딸아이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미처 손을 쓸 새도 없이 눈앞에서 사랑하는 cicak의 죽음을 보게 되니... “엄마, 어떡해? 나 때문이야, cicak이 심심해 할까봐, 답답해 할 까봐 야옹이랑 친구 하라고 놓아 주었는데..” 이후 딸아이의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동안 cicak을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한 참이 지났다. 일기 쓰기를 좋아하는 딸아이에게 ‘cicak 이야기도 한 번 써보렴’ 하였더니 금세 눈물방울이다. cicak 이란 단어가 딸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고, 약육강식의 잔인함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았다 해도 cicak을 사랑했던 순수한 마음이 딸을 아픔과 함께 성숙하게 할 것이라 믿는다. 딸아이의 말처럼 인니어로 처음 알게 된 단어(동물)의 이야기다.

둘, Terimakasih, banyak (정말 고맙습니다)
 교민지에 실린 국립공원 할리문 탐방기라는 글을 보고서 산행을 하기로 했다. 신혼여행을 한라산 완주로 잡을 만큼 산에 대한 미련이 많았던 우리는 에베레스트라도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지나보니 그것이 얼마나 산에 대한 경외심 없는 경박한 자만심이었는지...
 공원 입구에 차량과 기사를 남겨두고 몇 백 명 사

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 등반을 시작했다. 어설플 인니말로 산행하는 사람들과 짧은 인사도 나눠보고, 누군가 국적을 묻기에 korea라고 하자 oh! korea, seoul! 할 때는 울컥 하였다. 내가 서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울컥하는 애국자였던가?

대부분의 산길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좁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뻣뻣하고 거대한 나무들은 갑탄사를 연발하게 하였다.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화산의 온천물에는 계란도 삶아 먹을 수 있다고 꼬드기며 오르기를 더 하니 밀림이었던 숲속에 갑자기 넓은 공터가 나타나고 흰색의 흙과 고목처럼 되어버린 나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신기했다. 화산 폭발의 흔적이란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었다. 조금 더 가니 진흙 길이다. 화산이 진흙도 분출한다더니 머드팩하기 딱 좋아 보이네! 생각하며 또 오르기를 반복,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화산이 펼쳐지고 미처 챙겨가지 못한 주인 없는 계란도 한 편에서 익어가고 있었다.

도전에 따른 성공의 성취감과 생소한 자연 현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온 몸으로 느끼며, 기념 촬영을 하고 화산 옆에서 준비해 간 김밥을 먹느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살피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얼핏 주위를 둘러보니 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하산을 하기에 우리도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저만치서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앞서가던 남편이 아이를 들쳐 업었다. 머드팩 하기 좋겠다. 라고 낭만스럽게 생각했던 진흙길은 비로 미끄러워져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아이를 업고 가는 남편의 뒷모습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빗줄기도 강해져가며 올라올 때 웃고 즐기며 손을 담그던 물길은 거칠게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아빠의 등에 매달려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아이의 등을 애처로워 할 겨를도 없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주위엔 우리 셋 뿐 이었고 무섭게 내려가는 남편을 따라잡으려다, 미끄러지며 깨

진 무릎사이로 흐르는 피를 수습할 정신도 없었다. 흙탕물은 이미 종아리까지 차올랐다.

더 이상은 한 발자욱도 떼 놓을 수 없을 만큼 지친 우리는 기적처럼, 물에 아직 잠기지 않은 작은 땅을 찾아내었다. 셋이 발만 딛고 설 수 있는 넓이였다. 천둥소리, 거센 빗소리, 까딱 잘 못하면 휩쓸릴 물길 사이에서 어둠을 밝힐 랜턴도 비상식량도 없었고, 온천서 발 담그며 놀자고 준비한 수건이나 여벌의 옷도 이미 젖어 있었다. 휴대폰의 충전상황이 아슬아슬 했지만 끊어지고 이어지길 반복하는 시도 끝에 지인과 통화가 되었다.

할리문 산 중턱쯤 된다는 두루 몽실한 위치설명과 긴박한 상황을 겨우 전하고는 ‘도와주세요!’를 외쳤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기사와 통화가 연결되었다. 인니어 라고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는데 Help Me. Tolong!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전원마저 꺼져버렸다. 만감이 교차했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 남편은 잠시, 혼자 길을 찾아보겠노라고 무서워하는 우리를 다독이고 길을 나섰다. 공포에 떨어 흐르는 시간조차 헤아리지 못하던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뒤에는 맨발의 기사가 훌쩍 젖은 채 올라오고 있었다.

생명줄 같던 기사 RAMAT 모습. 힘들었을 남편을 대신한다며 날카로운 돌길에 아이를 들쳐 업고 맨발로 내려가기에 ‘힘들겠다, 아이를 내 등에 업혀 달라’는 남편의 요구에도 괜찮다고만 한다. 어려운 하산 길에 구조요청을 받고 올라온 국립공원 직원의 친절함도 고맙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긴 잠바를 걸치라고 건네주던 따뜻한 배려까지 잊을 수가 없다. 묻는 말의 절반은 빙긋한 웃음으로 대답하며 한결 같이 순박하고 예의바르고 진솔한 청년이다.

깜보자가 성실과 순수의 꽃말을 가진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우리 기사는 그 성실과 순수를 대표하는 인니 사람이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차를 운전해주고 있다.

인니의 자연을 가벼이 생각하여 호되게 당한 나에게 인니의 따뜻한 인정을 알게 해준 RAMAT으



로 내 인도네시아 생활의 이질감과 두려움이 참 많이 사라졌다.

Terimakasih, banyak, Ramat!!

셋, KOSONG은 진주가 아니야
사야할 물건이 생겼다. 정보 수집결과 pasar 에 가면 어지간한 물품의 구입은 가능하다 하여 무조건 나갔다. 한국의 시골 5일장 같은 순박한 느낌이랄까? 2층 건물 중 지하에서 1층까지 모두 살펴보아도 찾는 물건이 없었다.

인니생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즈음, 인니어의 단어 선택에 제한이 많았던 나는상가 사람에게 2층에는 뭐가 있으며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묻게 되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에게 친절하게도 상가 사람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하였다.

다시 나는 더듬거리는 영어와 아는 인니어 단어들과 불쑥 나오는 한국어까지 총 동원하여 계속 2층을 궁금해 하자 인니사람은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는가 싶더니 다시 한 손으로 손목을 잡아 보이기도 하면서 손사래와 함께 꼬송이라는 말을 연거푸 하였다. 몸짓, 손짓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가 오고가는 상가사람과 나의 소통되지 않는 행동들에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어 킁킁 웃었고, 십여 분을 서로 답답해하다가 bodylanguage를 남들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제 서야 답을 찾았다. “아하 진주, 진주 가게가 있다는 거구나.”

아까 목을 감쌌지. 그건 진주목거리, 한손으로 다른 손목을 잡았지. 진주 팔찌..그래 진주 파는 곳이로구나. 응. 맞아. 인니어로 KOSONG은 진주로군. 그렇게 철석같이 생각한 나는 그래 진주를 사려는 것이 아니야. KOSONG은 내가 찾는 물건이 아니야” 라며 (물론 이것도 완벽한 문장의 의사표시는 아니었지만) 집으로 걸음을 돌렸다. 이후

로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인니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쌓였을 때, 몸짓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는 것이며 KOSONG은 비었다는 뜻이었다. 그 날 그 Pasar에서 재밌게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시장 한 복판에서 내가 멋진 원맨쇼 한 장면을 선물 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실수와 당황을 반복하며 나의 인니 생활은 점점 익숙해져가고 하나씩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맞아! 그런데, KOSONG는 진주가 아니야.



열대 과일 풍성한 인니에도 제철 과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미묘한 날씨 변화에 따라 크기도 생김새도 다양한 개미들도 눈 여겨 보게 됩니다. 숲이 텅 막히는 더위가 있어도 때론 맑은 햇볕에 하얀 이불빨래를 걸어둘 수 있어서 좋으며 떨어진 감보자를 찾잔 가득 채우고 하루 종일 들이키며 음미할 수 있는 인니 생활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니생활을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보따리를 가득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을 글자로 표현해 놓았을 뿐인데 상이란 것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야자나무

시: 한 경순 / 그림: 이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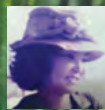
벌거벗고 있어 수줍다
대낮에 적통을 흰히 드러내고
가로수 허리춤에 걸터앉은 여인
플빌레의 노래가 낭만이다

떨러지는 야자 잎 좌우로 부채질하며
항금빛 누우런 자태
적도의 여신

모르는체 하려는데 어찌 그리 설레는지
하나도 아닌 둘 이상
영글어 터질 듯한
홀러덩 벼은 뽕오얀 가슴

담장 넘어 사내아이 꼬물꼬물 꿈틀 거리네

한경순 약력
인천 출생
한-인니 문화 연구원
인터넷 공모전 제4회 특별상 수상
현 한국 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 회원





우리 삶의 벽에 대해...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시내로 나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 눈길을 사로잡고 시야를 잡아당기는 지점이 있다. 그곳은 바로 우리 아파트 앞 흰하게 탁 트인 넓은 공터이다. 옹기종기 모여 살던 현지인들의 작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그곳이 철거되면서 웅하니 넓은 공터가 하늘과 마주하고 있다. 아파트 한 동을 더 지으려고 아마도 오래전부터 우리아파트 그룹에서 사들인 땅인 듯싶다.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콘크리트 벽이 내 시야를 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넓은 여백으로 펼쳐진 공간이 너무 좋다. 베란다 창밖으로 하늘을 쳐다보다가도 시선이 맛 닿으면서 나를 끌어당기는 무언의 힘을 느낀다. 그 여백의 공간에서 나만의 그림을 그리며 상상의 나라 속으로 빠져들곤 한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바로 앞 동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서 남으로 향한 곳은 낮에는 햇볕이 뜨거웠고 밤이면 건너동의 불빛 때문에 커튼으로 벽을 만들어야 했다. 베란다와 현관문을 마주 열면 산들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위안을 삼곤 했지만 멀리 있는 풍경과 먼 산보기를 좋아하는 나에겐 앞 동에 가로막혀 버린 벽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했었다.

거실의자에 앉아서 창밖의 벽 사이를 대각선으로 뚫고 들어온 열댓 잎들의 움직임에 마음을 주며 소요하는 시간을 보내곤 했다.

더러는 아파트 로비가 바라보이는 창가에서 하늘을 향해 쪽 뻗어있는 대나무 숲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도 했다. 그러다 서너 해전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 온 후론 어릴 적 그리던 동화 속 풍경을 연출 하듯 나만의 여백놀이에 푹 빠져있다.

멀리는 시내가 한눈에 바라다보이고 가까이는 흙냄새나는 넓은 공터가 도화지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그 여백의 공터에 어느 도시의 숲처럼 거대한 숲을 옮겨놓거나 산등성이나 해변을 옮겨 놓기도 한다. 때로는 거침없이 푸르게 펼쳐진 바다를 상상하기도 한다. 일상의 사소한 풍경이라지만 바라보이는 시야의 여백으로 영혼이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요즘은 도시는 물론이고 전원주택단지에도 시야를 가리는 아파트가 무리를 지어 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시각적 공간을 차단하고 있다.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여백마저 단절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앞선다.

역사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듯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도 바뀌기 마련이다. 아파트라는 주거문화가 그 콘크리트의 차가운 벽들이 우리 마음의 벽까지 쌓아버릴까 걱정이 되는 건 단지 나만의 기우일까? 하얀 울타리에 빨간 장미덩굴을 올리고 햇볕 가득한 마당의 한갓진 귀퉁이에 예쁜 꽃밭을 가꾸던 유년 시절이 떠오른다.

현관문을 나서면 바로 흙을 밟고 지내던 그 시절의 자유롭던 기억들이 한없이 그리워진다. 이제나이가 들어감일까? 오늘도 아파트 앞에 펼쳐진 너른 공터를 바라보며 자유로운 상념 속으로 빠져든다. 느린 동작이지만 분주하게 오가는 현지인들의 삶의 곡선을 따라 이번에는 해안가에 어우러진 바닷가 마을을 상상해 본다.

지난 여름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동해안을 따라 여행하던 수평선 멀리 푸르게 펼쳐진 바다를 향해 눈동자가 달려가기 시작한다. 옆으로는 산등성이에 어깨도 부드럽게 굽이지는 능선과 제각각 푸르른 산세가 운치 있는 해안의 절경을 이루었다. 그런데 내 시야는 어떤 아파트의 직선에 의하여 아름답던 절경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항구 들목에서 바라보는 동네야 그렇다 치고 해안선 너머로 탁 트인 항구의 앞바다를 가려서 키가 산을 넘어가던 풍경이다. 삭막하기 그지없던 콘크리트

벽으로 차단된 아파트더미들, 그 차단된 벽을 바라보며 쓸쓸했던 기억이 있다.

그 해안선의 바다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아름다움의 절경을 그 흰 벽들로 인해 놓쳐버린 허무한 심정을 평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벽이라는 말은 어원학적으로 '무르스(Murus)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도시의 울타리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보호와 안전을 뜻한다. 벽은 양면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이자 삶의 근원이기도하며 한편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 고립의 상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벽으로 인해 생기는 경계는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과 밖, 여기와 저기라는 관계를 유형화 하면서 하나의 차별을 만들고 극단적인 두 개의 공간이나 개체를 만들어 낸다. 벽은 단절을 넘어서는 소통의 벽, 공감각적 시공간을 제공하는 벽,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담는 벽, 위압적이지 않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있는 벽 등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벽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벽들은 우리의 상상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차적인 벽은 사고의 벽이 아닌가 싶다. 문학기행을 다니다 보면 그 지방 사람들 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도시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기회가 없어서 못 가본 사람들이다. 계속 고향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의 벽은 경험의 벽이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도시에 계속 살거나 자신이 태어난 주 밖으로 생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 주의 특성상 평생 동안 생선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아마도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 경험을 피하는 관성이 있는가 보다. 인생의 젊은 시절에는 호기심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익숙한 환경과 입맛에 길들여지고 또 언제나 만났던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간접경험을 체험할 수 있지만 아직도 개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벽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금전에 대한 벽일 것이다. 우리는 종종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금전적인 핑계를 대지만 사실 우리의 벽은 금전적인 것 보다는 생각의 벽이 더 많다. 돈이 생기면 한다는 것은 대부분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불신의 벽이다. 우리의 삶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많다. 우리 사회가 신뢰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

에 비해서 아직도 불신의 벽이 있고 저개발국가에서는 이런 장벽이 사회발전에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불신의 벽으로 인해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다섯 번째는 지식의 벽이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 알지 못하면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 이것이 인간의 순리이다.

나의 경우도 나이가 들수록 자연에 관심이 많아진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나무들의 잎과 열매 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숲에서 자연과 공기와 대지가 협연하는 거대한 콘서트를 보는 느낌이다.

이 세상은 많은 보호벽과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균형감각에 달려있다.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서를 훈련하는 독서와 명상이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는 운동과 산책이 필요한 것 같다.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자꾸만 미루어지고 그렇게 삶의 여백이 절실하다고 느끼지만 바쁜 현대인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면 자연 앞에 선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보자.

그러면 그 벽이 허물어지고 보이는 환한 틈으로 다시 소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산을 파헤치고 바다를 막아 높이 쌓아올린 건물들의 벽도 벽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단허버린 마음의 벽을 균형 있게 허물어줄 소통의 매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적 공간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내 가슴에 부각되어있는 해도(海圖)가 다시 쌓아올리는 아파트 벽으로 인해 묻혀 버릴까 봐 안타깝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쉼터가 되는 마음속의 여백을 찾아 노력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보자. 그곳에서는 모든 벽을 허물고 진정으로 내 자신과 영혼이 쉬어갈 편안한 여백을 찾아서 잠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바마 스쿨(Sekolah Obama) SDN Menteng 01 Jakarta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멘 땡 국립 제1 초등학교(Sekolah Dasar Negeri(SDN) Menteng 01)는 교문 기둥에 미국의 44대 오바마 대통령이 1969년~1971년 동안 다녔던 학교라고 적혀 있다. 아세안 조각공원(SUROPATI공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에 들어서면 오바마 동상이 있다. 그 동상은 오바마 초등학교 시절의 이름을 따서 ‘바리의 꿈 (Barry Dream)’ 이라고 한다. 동상 밑에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Believes In The Power of Their Dreams” 라고 적혀 있다. 동상 왼손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가 보인다. 에벨레가 나비의 꿈을 믿듯이.

학교에 들어서면, 이 학교의 교훈처럼 항상 웃고 명랑하고 예의바르고 순결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1934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세워진 오바마 스쿨은 브수끼(Besuki) 국립 초등학교 (Besuki

No.4 Menteng에 위치)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상류층 자제들이 다녔다고 한다. 오바마 스쿨은 1962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인도되었으며, 그 후 Raden Saleh 재단에서 관리했다고 한다. 네덜란드 건축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자카르타 주정부 문화 관광국에 의해 1947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모범학교로 지정된 멘땡 제1 초등학교는 공립이며 국제학교로 명성이 대단한 학교로 한때는 입학 경쟁률이 10대 1이나 되었다고 한다. 한 해에 56명, 2학년만(한 학급 28명)을 모집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가 많이 생겨 2대 1 정도이다. 1990년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외국인 학생도 많았다고 한다. 오바마는 리더십이 강해 스카우트 캡틴이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어려운 일과 배고픈 사정을 이해하고 의협심이 강하며 양보를 잘하는 항상 웃는 밝은 학생이었다고 한다.



학적부에 의하면 그 당시의 오바마의 이름은 Barry Soetoro, 프랑스 초등학교에서 전학, 3학년부터 5학년(1969년-1971년)까지 재학, 출생지 Honolulu, 1961년 8월 4일 일생, 인도네시아 시민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오바마는 인도네시아에서 1967년-1971년 동안 살았다. 학교 현관 오른쪽에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2009년 1월 20일) 사진이 있고 힐러리가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 이 학교 학생들이 공항에서 맞이하는 모습의 사진도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오바마의 3학년 교실에는 퍼즐로 만든 오바마 모습을 보면 초등 후배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몇 차례 문화탐방 시 오바마가 공부했다는 교실에서 사진을 찍으며 우리들 마음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 즐거웠다. 그는 키가 커서 항상 뒷좌석에 앉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운동장으로 향하는 교실 벽이 없었다고 한다. 칠판도 현대식으로 바뀌어 스크린과 함께 다용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옛날의 분위기가 모두 바뀐 것은 아니어서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정감 가는 시골학교 풍경이다.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2007년 2월) 이후, 그가 다녔던 학교와 학교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오바마가 살던 집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루마 오바마는 현재 주인이 살고 있다는 본체의 오른쪽으로 아담하게 자리 잡은 별채가 오바마가 1970년부터 1971년 까지(당시 10세) 2년 동안

살았다는 집이다. 지금까지, 주말이면 세계 각지에서 최소한 40명씩 방문한다고 한다. 관심이 많은 만큼 이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많았다. 미국 대사관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루마 오바마를 미국 대사관에서 사려고 했고, 네덜란드 사업가는 케냐-지바 커피 카페를 오픈 할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제 이곳은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명소가 되어 버렸다. 2008년 8월 28일 자카르타, 주정부 문화 관광국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39년, 지어져 75년이 지난 집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 지금은 원래 주인(오바마 거주 시 주인)의 딸이 살고 있다. 꽃나무가 어우러진 앞마당은 마치 어느 흑백 사진 속의 작은 정원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오바마는 이사 오던 날 많이도 울었다고 한다. 이 앞마당에서 어린 오바마는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은 어린 오바마가 공을 차고 있다. 굵은 땀방울이 온몸을 적신다. 힘차게 공이 솟구쳐 오른다. 태양의 축복을 받으며 초록의 희망이 솟구쳐 오른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힘차게 솟아오르던 공을 보며 지금은 방향하고 있지만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다짐을 하는 어린 오바마를 만난다.

오바마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의 루오족 출신으로 흑인이다. 미국인이 똑똑한 청년 오바마 아버지를 하와이로 유학을 보냈다. 대학에서 만난 백인 여성과 결혼하여 오바마를 낳은 후 케냐로

Jalan-jalan Jakarta



돌아갔다고 한다. 그는 케냐로 돌아가 두 번이나 장관을 지냈다고 한다. 8년 뒤 오바마는 아버지와 잠시의 재회가 있었다. 그 후 한 번도 아버지(1982년 11월, 46세. 교통사고로 사망)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어린 시절을 간직하기 위해 '오바마의 친구들' 이라는 단체를 만든 옛 친구들은 그의 동상을 만들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높이가 2미터인 오바마 동상은 2009년 12월 10일 실비아나 무르니(Sylviana Murni) 시장이 공식적으로 제막했다. 인도네시아인 양아버지와 미국

인 어머니를 따라 인도네시아에 왔던 어린 오바마는 아버지의 부재와 피부색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다. 동그란 공을 어루만지며 '인간은 평등하다' 라고 외치며 나만의 이름이 있다고 울고 있는 외로운 오바마,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희망이 되었다. '바리의 꿈 (Barry Dream)' 의 나비는 말한다. 나비의 희망을 머리에 이고 다시 찾은 자신의 뚜렷한 정체성, 그게 삶의 증거라고. 기다리는 법을, 애벌레의 꿈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비의 꿈을 키워준 초등학교 교실을 그는 잊지 않았겠지. 자신과의 싸움이 긴 오바마는 외로운 최초' 에서 '빛나는 최초' 가 되어 당당히 빛을 내고 있다.



Sekolah Obama Jl. Besuki No. 4
Menteng Jakarta Pusat
(021) 319 26228, 391-0893
Rumah Obama
Jl. Amir Hamzah No. 22



<제 1차 청소년 리더십 교육캠프 감상문>

(JKS 11학년/ 정다미)



개회식을 선언하며,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10가지 태도에 대해 배웠다. 리더십 캠프에 맞춰 배포된 4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에 리더십 교육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띈다. 1. 봉사를 자처하라. 험한 일은 내가 맡아서 한다. 2. 넓고 큰 포부와 꿈을 갖는다. 3. 포기하지 않는 개척의지 4. 모든 것엔 때가 있으니 때와 나이에 맞게 살라 5. 적극적인 태도로 대인관계를 맺어라 6.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 7. 폐 끼치지 않는 생활을 하라 8. 미워하지 마라 9. 연애를 해서 인생의 반려자를 정확히 알자 10. 사회에 도움이 되는 큰 일을 할 사람이 되자

지난 18년 간 나는 인니에 대한 무관심과 나의 삶의 뚜렷한 목표없이 방황하던 생활을 해왔었다. 인니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었다. 학교 인니어 시간에 짧게 배우는 것 외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다. 또, 그저 어렵듯하게 미래를 그려보기만 정작 분명한 목표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인니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생을 설계하는데 시간관리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센틀 Back To Nature 빌라로 제 1차 청소년 리더십 교육캠프를 갔다. 참가자 대부분은 이제 곧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나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었다. 곧 입시를 앞둔 학생으로서 시험 끝나고 가는 이 캠프는 마치 시험 기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총4번의 강의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먼저 Toast Masters 의 마이클 강사님께서 영어로 강의를 했다.

Toast Masters는 일반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과 리더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Public Speech Speaking; 즉, 영어로 대중연설을 하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마이클 강사님께서 참가자들을 한 명씩 앞으로 불러내 2분 가량 동안 즉석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내게는 난감한 주제가 주어졌고 나는 2분간 3마디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야만 했다. 모든 참가자들의 스피치가 끝난 후 마이클 강사님께서 우리가 남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남들이 내가 스피치하는 동안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남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신경쓰지 말고 짧은 시간안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짧은



시간안에 사람들을 자신의 말에 집중하게 만들고 모든 말이 끝난 후 상대방이 내가 무엇에 대해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야만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상대방이 나에게서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질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 한다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마이클 강사님의 강의가 끝난 뒤, 우리는 CJ Tous Les Jours 에서 만든 따끈따끈한 빵을 먹으면서 휴식시간을 가졌다. 잠깐의 휴식시간 후, 마이클 강사님께서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강의 중 마이클 강사님께서 제일 강조한 얘기이다. 자기 전, 다음 날에 해야 할 일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 놓는 버릇을 들이게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해야할 일을 미루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체계적으로 할 일을 적어놓고 실행한다면 과제를 늦게 제출하거나 마감 몇 시간전에 허둥지둥 급하게 과제를 할 일도 분명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목표는 방향을 도전의 에너지로 바꾸어준다고 한다. “삶의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도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종이에 적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어렵פות하게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꿈만 꾸는 것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을 하는 것의 차이이다. 예를 들자면 시험을 잘 보길 바라기만 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나는 마이클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없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법을 배울수 있었다. 그리고 플래너를 쓰면서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간관리를 하여 과제를 미루다가 한꺼번에 하는 일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목표를 정해놓고 책상 앞에 붙여서 항상 그 목표를 읽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이클 강사님의 유익한 강의 후, 이후 외과 의사 이태걸 원장님께서 오셔서 강연을 하셨다. 이태걸 원장님께서 의사가 어떤 직업인지, 현재는 어떤 분야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의료수준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 말씀해주셨다.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나에게 가장 와 닿았고 학생인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었다.





이어서 우리는 헤리티지의 이수진 회장님의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지형, 면적, 기후, 인구, 종족, 종교, 언어, 화산활동, 자연재해, 천연자원, 지리적 배경, 인도네시아 고대 왕국과 왕조 등에 대해서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 주셨다. 지루할만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하게 설명해주신 회장님 덕분에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이수진 회장님의 강의 모든 활동이 끝난 후 밤에 참가자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두시간 정도 캠프파이어 시간을 가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모두들 낭만에 젖는 시간이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한후, 캠프 참가자들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장기 자랑 시간에 모두들 주저함없이 춤과 노래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근이와 재홍이 두 MC들이 재치있게 준비한 다양한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등산을 하기 위해 산으로 갔다. 처음 30분 가량은 뜨거운 햇볕 아래의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가야해서 많이 지쳤지만 그 후 1 시간 동안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산 아래의 경치를 구경할 수 있었다. 등산을 하는 도중에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번 시작한 등산,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걸었다.

등산을 마치고 난 후의 그 뿌듯함과 성취감은 목표를 달성한뒤의 성취감과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인생도 등산과 같이 진흙탕도 밟고 옷에 흙이 묻고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1박 2일간의 청소년 리더십 교육캠프를 통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반성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깨달았다.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든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유익한 캠프였다. 이번 행사에 도움을 준 삼성, CJ 인도네시아 푸레주르, 자연으로, 헤리티지 자원봉사자 6명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알차고 재미있는

국립 박물관 한국어 투어

정기 투어 -- 2015년 2월 셋째주 토요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무료 투어(매월 셋째주)

스페셜 투어 -- VIP 대상

장소...Jl. Merdeka no 12
Museum Nasional (Museum Gajah)
모나스 광장 근처 원편

일시...2015년 2월 21일 (셋째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전후

Pagi 앱에 댓글을 달아 신청해주세요

주최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 섹션



제 25차 헤리티지 탐방 에퀼 탄산수 제조PLANT

일시 : 2015년 2월 25일(수) 8시

만남의 장소 : 짜부부르 보고르방향 맥도널드 주차장

탐방지: PT EQUILLINDO ASRI SUKABUMI

회비 : 15만 루피아 (점심 및 영어 가이드 포함)

신청접수: 7547yh@hanmail.net -- 성함과 전화번호/ 차량 (유)(무)

헤리티지 밴드 /PAGI 앱 -- 신청 접수

헤리티지에서 오랫동안 가장 인기있었던 탐방지로서,
에퀼 탄산수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태학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에퀼 Plant를 함께 가보시면
얼마나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연회비 65만 루피아(가족) 35만루피아(개인)

주최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 섹션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261회 문화탐방 독립의 거리 예술의 거리 Menteng - Cikini탐방

일시 : 2015년 2월 17일(화)

오전 9시 - 오후 4시 (8시30분 연구원 집결)

탐방지 : 오바마스쿨 (SDN Menteng 01)

짜마라갤러리 (Galeri Cemara 6) 독립선언서작성박물관 (Museum Perumusan Naskah Proklamasi) 야니박물관 (Museum Achmad Yani) 외

회비 접수: 40만루피아 (회원 35만루피아)

BCA 7150679111 / Aries Pramono

Mandiri 900-000-498-3509 / Asrida

문의 및 접수: 021-5273630 / 081584797879 (SMS)

lovekoin@hotmail.com

연구원 : Jl. Gatot Subroto Kav.58 코리아센터 404호

(대사관과 메디스트라 병원 사이)

원장 사공경 0816-190-9976 / Email : sagong@hotmail.com



분쟁 해결(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8.6.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는가?

파산선고 청구 관할 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는 일반지방법원이 아니고 특수법원인 상업법원 (Pengadilan Niaga)이다. 자카르타, 수라바야, 마카사르, 메단 및 스마랑에 상업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8.7. 파산선고 청구 재판절차

변호사에게 파산선고 청구 위임 - 상업법원에 등록 - 재판부 배정 - 청구자 및 피청구자에게 법정출두 명령 송달(*채권자, 검찰, 중앙은행,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원 혹은 재무부장관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법정 출두를 명해야 한다.

채무자가 청구하거나 파산선고 조건에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법정 출두를 명할 수 있다) - 심리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른다.

8.8. 파산선고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상업법원의 법정 판결시한은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이다. 상업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한다. 항소 등록 시한은 상업법원 판결일로부터 8일 이내이다. 대법원 법정 판결시한은 대법원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이다. 총 소요기간은 상업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장 60일, 상업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에는 최장 128일 이내이다. 그러나 통상 상업법원은 법정 처리 시한 60일을 지키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8.9. 감독판사(Hakim Pengawas)

파산선고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의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파산선고 판결문에 감독판사로 임명한다. 감독판사의 임무는 전체 파산하는 일이다.

8.10. 관재인(Kurator)

전체 파산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재인이다. 파산선고 판결문에 감독판사와 함께 관재인을 임명한다. 관재인은 관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파산선고 청구자가 요청한 관재사를 재판부가 임명한다. 관재사의 기본 임무는 파산재산을 운영하거나 정리하여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일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8.10.1. 파산선고 판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국 단위 일간지와 관보에 파산선고 판결문을 공시하고 모든 채권 등록을 요청한다.

8.10.2.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8.10.3. 채권등록을 받는다. 담보권 보유 채권자, 국세채권 보유 국세청, 관세청, 관세 채권 보유 관세청 및 임금채권 보유 직원도 채권을 관재인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는 파산재산 매각 대금에서 상환이 제외된다.

8.10.4. 등록된 채권의 적법 여부를 감독판사와 함께 결정한다.

8.10.5. 파산재산을 매각한다.

8.10.6. 파산재산 매각 대금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 순위에 따라 지불한다.

8.10.7. 관재업무가 종료되면 감독판사에게 관재업무 종료 보고하고 신문에 파산 종료 공고를 한다.

8. 1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시행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시행은 파산선고일로부터 90일간 보류되며 90일이 지나면 담보권 보유자는 60일 이내에 담보권을 시행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담보권 시행을 하지 않으면 담보물 매각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간다.

8.12. 파산재산 매각

8.12.1. 관재인이 파산재산을 매각하며 매각은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감독판사의 경매 허가를 받아 재무부 산하 공매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를 한다. 관할 지방 일간지에 경매 공고를 해야 하며 경매 공고에 최저 매각가를 포함한 경매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8.12.2. 경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경매, 3차 경매를 할 수 있으며 경매 최종 결정권은 관재인에게 있다.

8.12.3. 경매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감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재인이 수의 계약으로 파산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8.13. 채무 상환 순위

파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지불 순위는

i). 관재인비, ii).담보권 보유자의 채권, iii). 직원 급여, iv). 국세, v). 일반 채권자(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이다.

*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지불 후 잔액이 있으면 차후순위자 순으로 지불하나 통상 채권으로 인정되어 등록되어 있는 채권자에게는 소액일지라도 지불이 있다.

8.14. 채무지급연기 판결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봐서 셋이다. 첫째는 채무자 자신의 청구, 둘째는 채권자의 청구, 셋째는 관할 관공서의 청구이다.



8.14.1. 채무자 자신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1명이상(최소 2명) 있는 채무자는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채무지급연기 청구서에 채무자 자신과 변호사의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 100%가 직접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결의하거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서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결의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지급연기 청구안건 임시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의 3/4(75%) 참석에 참석한 주주의 3/4(75%)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채무지급연기 청구서에 채무의 성격, 채무액 및 채무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채무지급연기 청구서에 채무자 자신과 변호사의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8.14.2.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금전대여 채권자, 물품 혹은 서비스 제공 채권자, 건설계약 채권자, 임대차 채권자, Lease 채권자, Factoring 채권자 등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및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임금 채권자도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한다는 것이 사회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제도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반드시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조사해야 하며, 채무자는 채무의 성격, 채무액 및 채무 증빙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화의 청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 계획서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8.14.3. 관할 관공서가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하는 경우

8.14.3.1. 중앙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인도네시아은행만이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은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할지라도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청구를 직접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중앙은행에 해당 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중앙은행이 판단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8.14.3.2. 자본시장 및 금융 감독원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증권회사, 증권시장회사, 은행어음 교환 및 보증기관 혹은 보관 및 해결기관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직접으로는 하지 못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 감독원 만이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할 수 있다.

8.14.3.3. 재무부 장관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 관리 단체 혹은 공익분야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직접으로는 하지 못하며, 반드시 재무부 장관에게 청원하고 재무부 장관이 판단하여 채무지급연기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8.14.4. 채무지급연기 청구에 대한 임시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채무자가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하면 재판부는 청구 등록일로부터 최장 3일 이내에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용인한다는 내용의 임시판결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한다. 채권자가 청구한 채무지급연기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 등록일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용인 임시판결을 내려야 한다. 임시 용인 판결은 다음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재판부는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의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채무지급연기 감독판사로 임명한다. 감독판사의 임무는 전 채무지급연기 과정을 감독하는 일이다. 채무지급연기 임시 판결문에 감독판사와 함께 관재인을 임명한다. 관재인은 관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채무지급연기 청구자가 요청한 관재사를 재판부가 임명한다. 관재사의 기본 임무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이며, 임시 판결문의 내용과 임시 판결 이후 재판일정을 아무리 늦어도 개정일 21일 이전에 감독판사가 지정한 전국 단위 일간지 2군데와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8.14.5. 채무지급연기 임시 용인 판결후 채무지급연기 청구 심리

8.14.5.1. 임시 용인 판결 후 법원은 이후 최장 45일 이내에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8.14.5.2. 채무자가 정해진 심리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임시 용인 판결은 즉시 실효하며 동일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8.14.5.3. 채권자가 채무지급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부는 채권자의 결정을 판결문으로 확인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8.14.5.4. 채권자의 채무지급연기 결정 요건은 법정에 참석한 채권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임시로 인정받은 일반 채권자 최소 2/3 참석에 참석자 1/2 이상 찬성과 법정에 참석한 채권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임시로 인정받은 우선순위 채권자 최소 2/3 참석에 참석자 1/2 이상 찬성으로 재판부가 채무지급연기 용인을 판결한다.

8.14.5.5. 관재인과 일반 채권자 사이에 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판사가 판결한다.

8.14.5.6. 파산선고 청구와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동시에 심리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지급연기 청구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려야 한다.

8.14.5.7. 파산선고 청구 후 채무지급연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지급연기 청구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려야 한다.

8.15. 화의 판결

8.15.1.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채권자회의에 화의를 신청할 수 있다.

8.15.2. 채권자회의에서 일반 채권자 1/2 이상 참석 및 참석 일반채권자 1/2 이상 찬성으로 화의를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 보유 채권자 및 우선순위 채권자는 화의 의결권이 없다.

8.15.3.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된 화의 결의는 재판부의 판결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8.16. 복권 판결

8.16.1.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로서 모든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한 채권자는 채권자로 인정받은 모든 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8.16.2. 상업법원은 상기 신청서를 2개 전국 단위 일간지에 공시한다.

8.16.3.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부는 복권 판결을 하여 파산이 선고됐던 채무자의 법적 신분을 복권한다.

8.17. 파산선고는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 보호하는 제도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가 됨으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일이 없어져 개별 소송 시 달림에서 벗어나게 되며, 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산 매각대금으로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미수채권은 파산선고 판결문에 근거하여 Write-off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다음 호에 계속)

일상생활 BAHASA

2015년의 1월을 느낄 틈도 없이 어느덧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으로 2015년을 맞이 했나요?

계속되는 비 소식에 외출 횟수도 줄이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몇몇 단어 소개하겠습니다.

비는 내리는 정도에 따라

비 **Hujan**

보슬비/ 가랑비 (Hujan gerimis)

= Karena hujan gerimis, peliputan gambar ditunda hingga hujan reda.

보슬비가 내려 비가 잦아들 때까지 취재를 연기했다.

폭우 (Hujan deras)

= Hujan deras yang mengguyur Jakarta selama dua jam mengakibatkan banjir di beberapa wilayah.

소나기 (Hujan pendek)

= Berdasarkan prakiraan cuaca, hari ini Bandung akan diselimuti awan mendung dan sesekali turun hujan pendek.

바람은 부는 특성에 따라

바람 **Angin**

= Kertas hasil ujian di atas meja Budi jatuh tertiuip angin.

산들바람 Angin sepoi sepoi

= Angin sepoi-sepoi mengibaskan rambut wanita itu.

강풍 Angin kencang

= Hujan deras yang disertai angin kencang menumbangkan banyak pohon.

태풍 Topan, badai (돌풍, 바다에서 파도와 함께 부는 돌풍)

= Angin topan yang melanda Filipina 16 Juli 2014 yang lalu sedikitnya menewaskan 10 orang.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외마디 표현

아무쪼록 ~하십시오. (정중한 권유)

Silakan

실라칸

자 ~ 합시다.

Ayo/Mari

아요 / 마리

~ 해주세요.~ 합시다. (의뢰 / 요청) * 구어체로

는 Yuk~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Tolong

톨롱

~ 하고 싶다.

Mau / Ingin

마우 / 잉인

~ 할 수 있다. (가능)

Bisa / Dapat

비사 / 다했

~ 해도 괜찮습니다

Boleh / Bolehkah?

~ 해도 괜찮습니까? 볼레 / 볼레까?

허영순/OKTN(KBS WORLD)

재외국민등록

1.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안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등록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의 재외국민등록란을 방문

하여 접수합니다. 여권 사본(사진란 및 최초입국스탬프면),

체류허가서 사본(KITAS, KITAP, 비자사본)을 대사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방문접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과 구비)

◆ 여권 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 체류허가서 사본(KITAS, KITAP, 비자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 체류허가서 사본(KITAS, KITAP, 비자사본)

2. 재외국민등록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 성명

◎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 성별

◎ 여권번호(여권 재발급시 여권번호 변경)

◎ 등록기준지(있는 경우만 해당)

◎ 직업 및 소속기관

◎ 병역관계

◎ 체류목적 및 자격

◎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출생, 사망, 귀국시에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거주확인서) 발급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며, 등록된 다음날 해당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영사과 구비)

◆ 여권 원본 또는 사본

◆ 대리인이 접수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뒷면에 있습니다)

◎ 우편접수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사본

◆ 받으실주소를 기재한 봉투

* 우편접수시에는 영사과에 사전문의 필요(배송비 및 수수료 지불관련)

◎ 한국 방문하여 발급시

외교부 여권과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 연락처 : 02-2100-7578(재외국민등록 창구)



생활 속의 응급처치 법

인생사,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른다. 갑자기 다치거나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상황별 응급처치법을 소개한다.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처치 후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응급처치 왜 중요한가?

위급상황 시 치료 시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신체 손상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응급처치다.

치료 시간이 지연되면 이후에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더라도 손상 부위가 정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산소가 잘 공급되지 못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심장이나 간 등 각종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

특히 50~60대 남성은 각종 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응급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상황과 증상에 맞는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Lesson 1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법

골절되었을 때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팔다리 모양이 변형됐거나, 삐조각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거나, 외상 부위를 눌렀을 때 국소적인 통증이 느껴지면 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는 다친 부위를 가장 편한 자세로 고정하고 응급실로 간다.

특히 팔다리가 꺾이거나 변형된 경우 정확한 검사 없이 현장에서 무리하게 펴면 골절 부위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목을 삐었을 때

등산이나 운동 중 발목을 삐면 부상 한 발목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 주의한다.

우선 신발을 벗고 앉아 손상 부위를 차갑게 식혀준다.

얼음을 수건 등에 싸서 찜질하는 것이 좋지만, 얼음이 없을 때는 찬물을 손수건 등에 적셔 부상 부위를 냉찜질한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붓는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다.

부목을 대는 것도 좋은데, 부목용 나무가 없을 때는 종이박스나 돛자리를 둥그렇게 말거나 튼튼한 나뭇가지를 발 뒤쪽에 고정시킨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쥐는 일종의 근육 경련으로 높은 강도의 운동이나 자주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쓸 때 나타난다. 운동할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쥐가 더 잘 생긴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수축된 근육을 펴주면 빠르게 회복된다. 따라서 종아리에 쥐가 날 경우 발끝을 잡고 발을 발등 쪽으로 민다.

열상으로 피가 멈추지 않을 때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열상을 입었을 때는 상처 부위를 거즈 등으로 덮고 손으로 눌러 지혈한다.

이때 지혈제를 사용하면 지혈제 가루가 상처 사이에 박혀 오히려 상처 치유가 느려질 수 있으니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계속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상처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묶어 지혈한다.

너무 세게 묶으면 동맥까지 압박할 수 있으므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묶는다.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가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1도 화상이라면 찬물로 상처 부위를 식힌다.

물을 너무 세게 뿌리면 화상 부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이나 찬물을 컵이나 그릇에 받아 상처 부위를 적셔야 한다.

물집이 잡히고 피부 표면이 벗겨지는 2도 화상은 항균력이 뛰어난 연고를 발라 피부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2도 화상부터 물집이 생기는데, 물집을 터뜨리면 흉터가 남게 되므로 터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간다.

3도 화상은 화상 부위가 하얗게 혹은 검게 변하고 만져도 아프지 않은 상태인데 3도 화상 이후부터는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특히 전기나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은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의를 찾는다.

화상 부위에 된장이나 감자를 갈아 바르는 민간요법은 세균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피한다.

코피가 날 때

코피가 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코의 외상이 흔한 원인이지만 비강에 이물질이 있거나, 코를 세게 풀거나, 머리 부분에 타박상이 있을 때 코피가 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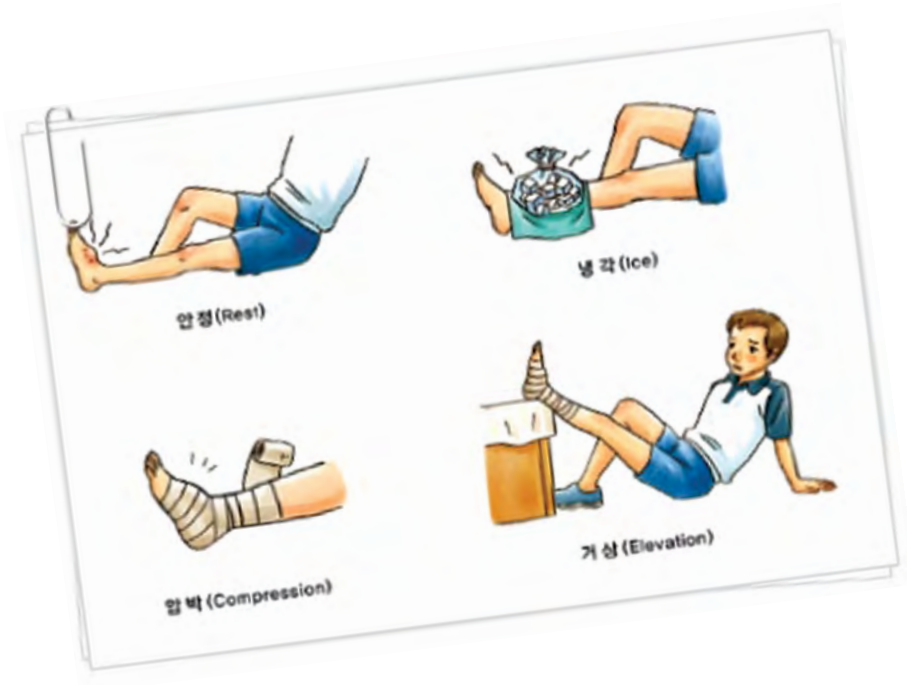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으로 혈압이 상승해도 코피가 난다.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들고 콧날을 잡아 피를 멈추게 한다.

동시에 탈지면이나 휴지로 콧구멍을 막아 지혈을 한다.

코피는 마시지 않으며, 코피를 심하게 쏟을 때는 목덜미와 코 주변에 얼음을 대준다.





못이나 철사에 찔렸을 때

철사나 못처럼 뾰족한 것에 찔리면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기기 쉽다.
 이때는 상처의 피를 조금 짜낸 뒤 소독을 한다.
 깊이 찔렸을 때는 혈관이나 신경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간다.
 녹슨 못에 찔렸을 때는 파상풍을 주의한다.
 파상풍은 녹슨 못이나 동물의 배설물 등에 서식하는 파상풍균에 의해 생기는 근육수축성 질환으로, 산소가 부족한 깊은 상처 부위에서 잘 생긴다.
 파상풍이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설사를 할 때

설사 증상이 있지만 심한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없다면 우선 따뜻한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충분히 마셔 부족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구토, 심한 복통, 탈수, 고열, 혈액이 섞인 설사, 혹은 하루 10회 이상 심한 설사 등이 있으면 신속히 병원에 가야 한다.
 10회 이하의 심하지 않은 설사를 할 때에는 물 종류만 섭취하면서 하루 정도 금식한다.

이후 설사나 복통이 심해지지 않으면 죽처럼 부드러운 식사를 한다.

지사체는 고열 등 전신 증상, 염증성 설사, 이질 등이 있을 때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벌침에 쏘였을 때

벌침에 쏘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처럼 딱딱한 재질의 카드를 침이 박힌 반대 방향으로 밀어서 벌침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벌침이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박혔다면 왼쪽 방향에서 카드를 밀어 침이 나오게 한다.

침을 제거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 내고, 손수건이나 수건을 찬물에 적혀 차갑게 감싸는 것이 좋다.

손으로 벌침을 뽑으려고 하면 오히려 피부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 조심한다.

벌침에 쏘인 뒤 안면부종이나 천식발작 등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한다.

Lesson 2 의식저하로 쓰러지면 119에 먼저 신고해야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저하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상태가 되면 몸에 힘이 빠지고, 안절부절하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경미하면 환자 본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사탕 등 단음식을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면 회복된다.

심한 저혈당 증상으로 쓰러져 의식이 저하된 상태라면 동행인이나 주변인은 음식물을 절대 먹이면 안 된다.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 환자의 폐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설탕물이 폐로 들어갈 경우 환자는 의사 직전과 같은 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저혈당으로 의식이 저하됐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정맥주사로 포도당을 보충해야 한다.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는 환자의 호흡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을 잃게 되면 혀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한다.

또한 흉부를 압박해 심장과 폐 기능을 살리는 응

급처치법을 실시한다.

의식이 있더라도 숨 쉬기 힘들어하고 입에서 가래 등의 이물질이 나올 때는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뇌졸중 의심될 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먼저 뇌졸중을 의심해 본다.

얼굴이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언어능력이 떨어져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3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넥타이나 허리 벨트 등을 풀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한다.

또 베개나 책 등을 이용해 환자 머리를 30~40° 높이로 들어올린다.

머리를 높여야 뇌압을 떨어뜨릴 수 있고, 구토 시 토사물이 체내로 흡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고혈압환자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예방하려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거나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또 운동을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다.

[출처] 생활속의 응급 처치법 <작성자 송일섭>

휴가철 상비 의약품과 준비물 (자료: 삼성서울병원)



의약품

해열진통제, 소화제, 제산제, 항생제가 포함된 피부연고, 소독약, 벌레 물린 데 사용하는 로션류



의료비품

체온계, 붕대, 반창고, 핀셋, 의료용 가위, 슝, 일회용밴드, 거즈



의류

모자, 긴팔 옷이나 얇은 점퍼류



기타

물이나 음료수, 휴지, 비닐봉투, 자외선 차단제

*의약품은 포장지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통상적으로 약액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개봉 후 1년 이내 사용하고, 연고제제는 개봉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기원

박상섭 저 | 아카넷

1차 대전은 그것이 가져온 엄청난 정치적·사회적 결과 때문에 꾸준한 학술적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1차 대전의 결과, 그 결과를 만들어낸 전쟁 수행의 구체적 과정, 그리고 이 대사건이 벌어진 원인의 측면에서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학계에서 1차 대전 연구는 외면 받아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차 대전은 말 그대로 세계전쟁이었기에 관여한 국가와 행위자들의 수다함과 주제별 요소들의 방대함을 검토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원(원인)’이라는 제한된 측면에서지만, 발발 100주년을 맞는 해(2014년)에 1차 대전을 다룬 국내 첫 저작이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갖는 의의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인터스텔라의 과학

킵 손 저/전대호 역 | 까치(까치글방)

크리스토퍼 놀란의 최신작 「인터스텔라」는 우리를 우리 우주의 가장 먼 곳과 그 너머 제5 차원(또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벌크”)을 향한 환상적인 여행으로 이끈다. 「인터스텔라」의 이색적인 스토리와 시각효과는 진짜 과학을 기초로 삼았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기획 단계부터 영화에 참여한 이론 물리학자 킵 손의 덕분이다. 블랙홀부터, 웜홀, 흰 시간, 흰 공간, 특이점, 양자중력, 중력이상, 제5 차원,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서랙트”(4차원 정육면체), 그밖에 훨씬 더 많은 것들까지, 킵 손은 이 책에서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과 그것이 스토리와 시각효과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생하게 설명한다. 『인터스텔라의 과학』에서 당신은 진짜 과학이 과학소설에 못지않게 기묘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느 멋진 일주일, 제주

김재민 저 | 봄엔

사람들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제주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여행지를 찾고 있고 [어느 멋진 일주일, 제주]는 그런 욕심에 진심 어린 답을 한다. 제주의 보물 같은 장소를 하나하나 발견할수록 제주는 한 뼘 더 가까워지고 제주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진다. 하지만 그 자연을 오랫동안 보기 위해 더욱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잊지 말자.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10

금현진,오제연 글/이우일 그림/세계로 기획 | 사회평론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시리즈의 열 번째 책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만들 대한민국’ 이 출간되었다.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시리즈는 1~8권이 2012년 5월에 출간된 이후 누적 7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소년한국 우수 어린이도서, 아침독서신문 추천도서, 조선일보 선정 어린이책, 학교도서관 사서협의회 추천도서,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 등에 선정되었다.



인구 쇼크

앨런 와이즈먼 저/이한음 역 | 알에이치코리아(RHK)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은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시민단체도 여럿 만들어졌으며, 정부는 각종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인구 쇼크》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신앙처럼 여겨 온 이른바 ‘저출산 망국론’ 에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미 인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인구 쇼크》의 핵심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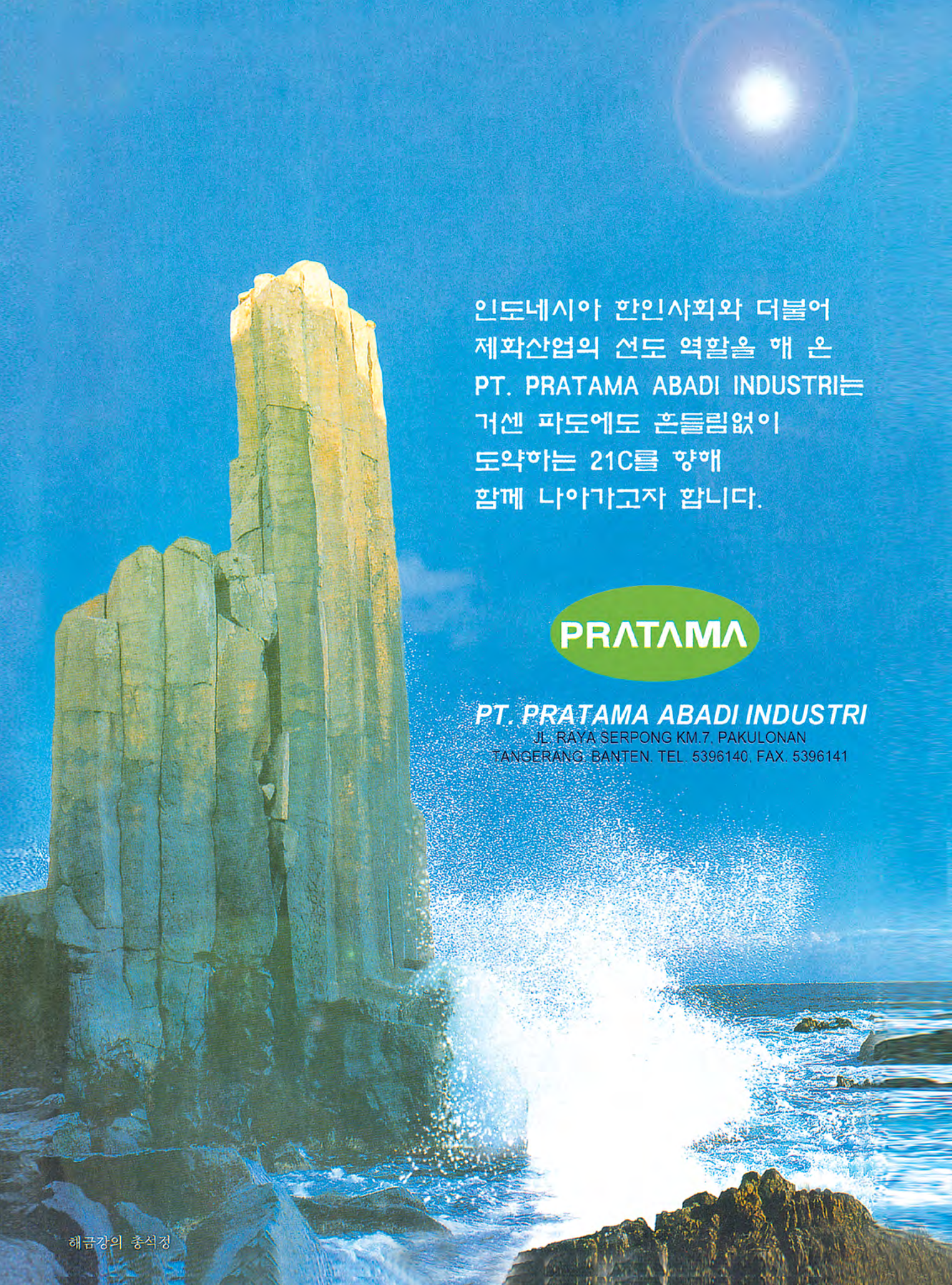
가족이 있는 삶

이재명,이봉진 공저 | 이케이북

연습 없이 태어나서 연습 없이 죽는 걸 지켜보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은 “인생은 초콜릿상자와 같아서 무엇을 집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해진 운명과 우연의 연속에서 사람은 어찌면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며 다소 달콤한 은유로 인생을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는 저자 이재명이 생존을 위해 내달려야 했던 한 80년 인생이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선도 역할을 해 온
PT. PRATAMA ABADI INDUSTRI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없이
도약하는 21C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PRATAMA

PT. PRATAMA ABADI INDUSTRI

JL. RAYA SERPONG KM.7, PAKULONAN
TANGERANG, BANTEN. TEL. 5396140, FAX. 5396141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F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당)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쿽서비스, 캐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양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승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취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4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誠과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www.doowang.net | E-mail: doowang@cbn.net.id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췌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성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쿼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K-마트	725 2122	산들(땅그랑)	5579 5821	종가집	8990 6956
위자야마트	726 9049	산타코리아	722 9921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식당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카사블랑카	8241 4949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상록수	8983 6047	코레아나	390 4568
가야성	725 7373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가효(Sudirman)	9127 2262	서라벌	572 3475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서울가든	(0361)768 323	코리안우스(횃집)	844 5877
강강수월래	380 5217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서울팔레스	(024) 447 414	태극관	822 7011
강촌(땅그랑)	5579 3681	소양(찌까랑)	897 2231	토담	521 0230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토박	725 1135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팔레스	5296 2001
고목(찌까랑)	897 3463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고인돌	452 5597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청기와	726 1924
고주몽	7279 6709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국일관	822 8974	시티서울	5289 7506	청해수산	739 7032
권명희복집	720 7464	신도시	897 3615	초가(가라와찌)	552 6043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아랑 22	5140 1245	춘하추동	5940 2846
기소야	574 7581	아랑갈비	8983 6047	팡팡치킨	720 7275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다리아분식	722 0276	아리아분식	722 0276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대감집	726 435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김삿갓	722 2230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하림각	551 8511
동해복집	720 7464	압구정	2905 2925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마포	7279 2479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한국관	720 7322
만나	821 5279	어울림	551 4853	한민족	725 2688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아마(땅그랑)	547 2722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어울(땅그랑)	551 4853	한솔	5290 3417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분가	739 6229	한양가든	521 2522
물레방아	8990 6956	우리들(땅그랑)	552 4047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목우촌	450 4155	울엄마	920 7244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함지박	739 6958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향수	645 2378
		장수대	726 4570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라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팅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건설팅	5290 0040
우리건설팅	7918 4239
건설팅 21	799 6182
퓨릭건설팅	5596 3213
한생건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북공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6074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	-----------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본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수출 수입 대행 전문회사
PT. SJ GLOBAL INDONESIA

- 수출대행 : 모든 품목
(단 수출 금지품목 제외)
- 수입대행 : API-U 가 없거나,
있더라도 품목허가가 없는 경우
(공산품 대부분의 수입허가 보유)

전화 : 021)290 99 865
HP)081 389 333 739
E-Mail : charles@sj-global.co.kr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021)521 2515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공항).....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021)5721 381~3 (공항).....021)5591 3229
싱가폴항공.....021)570 4411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Haesley Nine Bridge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는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땀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갈리만탄 Pase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